

### ■ 명(1368 ~ 1644)

- 성립 : 원 말기 백련교도의 난 → 흥건적 출신 주원장이 대도 점령, 난징 도읍, 명 건국 → 육유 제정, 승상제 폐지, 이갑제 정비, 해금령(1371 ~ ) 실시
- 발전 : **영락제(3)**, 재위 1402 ~ 1424) 때 **베이징 천도**(자금성, 1421), 몽골 공격, 베트남의 수도(탕롱) 점령(1407), **정화의 항해**(1405 ~ 1433)
- **북로남왜의 화** → 국력 소모
  - : 몽골의 침략[**토목보의 변(6)** 정통제, 오이라트부 에센, 1449], **경술지변(11)** 가정제, 타타르부 알탄 칸, 1550]
    - ↳ 만리장성 다시 축조
  - : 왜구의 약탈[동남 해안, 16세기 초부터 왜구가 빈번하게 침범]
    - ↳ 왜구 토벌[척계광(1528 ~ 1588), 푸젠성의 황서도 등을 공격하여 왜구의 근거지 소탕, **왜구 근절(1566)**], 해금 정책 완화(1567)

### ■ 조선(1392 ~ 1910)

- 건국 : 명의 철령위 설치 통고와 고려의 요동 정벌 ⇨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1388)** ⇨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세력의 **조선 건국(1392)**
- 사대교린의 외교
  - : **명과 조공·책봉 관계**[사대(事大), 정기적으로 사신(조천사)을 보내 조공, 1401 ~ ]
  - : 여진[국경 무역소 설치(회유), 4군 6진 개척(강경)]
  - : 일본[**쓰시마 정벌(1419)**, **3포 개항(부산포·내이포·염포, 1426)**과 **계해약조(1443)**]
    - ↳ 16세기 일본과의 교역 통제 강화[임신약조(1512)·정미약조(1547)] → **삼포왜란(1510)**, 을묘왜변(1555) 등 발생

### ■ 일본 무로마치 막부(1336 ~ 1573)

-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남·북조 분열 통일(1392)** → 명(明)과 국교 수립(아시카가 요시미쓰 일본 국왕 책봉, 1401) → **명과 감합 무역 전개**(1404 ~ 1547)
- **오닌의 난(1467 ~ 1477)**
  - ↳ **센고쿠 시대**(1467 ~ 1573) → **나가시노 전투**(오다 노부나가·도쿠가와 이에야스 ⇨ **다케다 가쓰요리, 1575**)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통일(1590)**

### ■ 류큐(1429 ~ 1879)

- 오키나와 열도에 14세기 세 왕조(중산·북산·남산) 출현 ⇨ 중부의 중산 왕조가 삼국 통일 ⇨ **류큐 왕국 수립(1429)**
- 일본 시마즈씨[島津氏]의 침입(사쓰마 번, 1609) → 메이지 정부의 정복(1879), 오키나와 현 편입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 부족이 무역을 요구하며 수시로 침략</li> <li>: <u>토목보의 변(오이라트 부 에센, 정통제, 1449)</u>, 다얀 칸의 다통 점령(1513), <u>경술지변(타타르 부 알탄 칸의 베이징 포위, 가정제, 1550)</u> ↳ 몽골과 강화를 맺어 군사비 절감, 만리장성 증축</li> <li>• <u>닝보의 난(= 영과쟁공 사건, 1523)</u>과 <u>감합 무역 중단(1547)</u></li> <li>: <u>왜구가 출몰</u>하여 동남 해안에서 잇따른 약탈 자행[가정제(㉠, 재위 1521 ~ 1567), <u>해금 정책 강화</u>]</li> <li>: 척계광(1528 ~ 1588) → 저장성 파견(1555), 척가군(戚家軍) 창설, 원앙진(鴛鴦陣) 고안, 왜구의 근거지 소탕, 왜구 섬멸(1566)</li> <li>• 포르투갈의 마카오 거주권 획득(1557)</li> <li>• 신종 만력제(㉡, 재위 1572 ~ 1620) 때 <u>장거정(1525 ~ 1582)의 개혁 정책 추진(1572 ~ 1582)**</u></li> <li>: 몽골과 화친, 관료들의 업적을 엄격하게 평가, <u>토지 조사</u>(토지丈量), <u>일조편법의 전국적 시행</u>으로 국가 재정의 호전(好轉)</li> <li>• <u>장거정 사후</u> 관료와 신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환관 세력의 전횡으로 <u>정치적 혼란 심화</u></li> </ul>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구와 사림의 대립[사화(士禍), 1498 ~ 1547] ⇨ <u>사림의 집권</u> ⇨ 붕당의 성립(1575) ⇨ 붕당 간의 대립 격화</li> <li>• 대지주의 토지 검병 등으로 농민이 몰락하면서 <u>군에 복무할 인원과 전세 수입 감소</u> ↳ 농민에게 부과하던 군역 대신 군포 징수, 군적에 등록된 인원은 크게 줄지 않았으나 실제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이 크게 감소</li> <li>• <u>사대교린의 외교 정책</u></li> <li>: 명 → 정기적으로 사신(조천사)을 보내 조공</li> <li>: 일본 → 3포(부산포·내이포·염포) 중심 교역, 3포의 왜관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교역이 원만하지 않자 난을 주도(<u>삼포 왜란, 1510</u>)</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오닌의 난(1467 ~ 1477)</u></li> <li>: 다이묘의 패권 쟁탈전 전개, 100여 년에 걸친 센고쿠(전국) 시대의 혼란 지속</li> <li>• 포르투갈 상인의 <u>조총 전래(1543)</u></li> <li>: 다이묘들의 패권 다툼에 이용되면서 센고쿠 시대의 세력 판도 변화, ex) <u>나가시노 전투(1575)</u></li> <li>• 혼노지의 변(아케치 미쓰히데의 모반으로 오다 노부나가 사망, 1582)</li> <li>• <u>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 시대 통일</u>[관백(關白, 간파쿠, 덴노를 대신해 정무 수행), 1590]</li> <li>: 전국적인 <u>토지 조사(태합 검지)</u>, 도량형 통일, 석고제(石高制, = 코쿠다카) 실시, <u>무기 몰수령(도수령)</u> 시행[덴쇼 16년(1588)]</li> <li>: 신분 이동 금지[하극상의 풍조 소멸], <u>병농 분리 확립</u>[무사·상공업자의 거주지(<u>조카마치</u>)와 농민의 거주지(농촌) 구분]</li> <li>: 무역의 확대와 과도한 군사력의 배출, 영토 확장 등 대외 팽창 모색 ⇨ 조선에 정명향도(征明嚮導) 요구 ⇨ 조선의 거절과 조선 침략</li> </ul>

Plus

류큐(1429 ~ 1879)의 역사\*\*



국이 지배하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되었다.

명(明)은 조공 횡수를 국가마다 지정하였는데, 베트남은 3년에 한 번, 일본은 10년에 한 번 정도를 지정해 주었다. 이에 비해 류큐는 1년에 한 번으로 우대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류큐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더 쉽게 더 많은 중국 상품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명의 해금 정책으로 명 상인이 해외로 진출하기 어려워진 점도 류큐 상인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하여 류큐는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에 걸쳐 명과의 조공 무역을 중심으로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잇는 중계 무역을 왕성하게 전개하였다. 왼쪽 지도에 나온 류큐 왕국의 교역로는 류큐가 명의 상품을 일본, 조선, 동남아시아 등지에 팔고, 각국의 특산품을 배에 싣고 돌아왔음을 보여 준다. 해외에서 조달한 물품에 자국의 생산품을 더하여 명으로 수출하고, 다시 배에 중국 상품을 가득 채워 귀환하는 전형적인 중계 무역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류큐의 중계 무역은 1567년 명의 해금 정책 완화와 유럽 상인의 진출로 점차 쇠퇴했지만 그 위상은 여전하였다. 1609년 일본의 사쓰마 번이 류큐를 정복하였다. 그러나 일본에 정복된 이후에도 류큐는 명과의 조공·책봉 관계를 지속(양속 관계)하였다. 일본이 류큐를 통한 명과의 교섭이나 무역이 갖는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이중적인 관계를 허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관계는 이후에도 지속되다가 1879년 메이지 정부가 류큐를 하나의 현으로 만들고 이어 오키나와로 개명하면서 끝났다. 오키나와는 태평양 전쟁(1941 ~ 1945) 때 미군에 의해 점령되어 군사 기지가 건설되었고, 1951년 일본의 주권이 회복된 이후에도 미

Plus

명(明)의 내외외환

명(1368 ~ 1644)은 몽골을 북방으로 몰아내고 중원을 차지하였지만, 15세기 이래로 계속 몽골의 압박을 받았다. 몽골은 한때 명의 황제를 생포하고(토목보의 변), 베이징 성문까지 진격할(경술지변)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명은 이를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다시 축조하였다. 동남 해안에서는 16세기 초부터 왜구가 빈번히 침입하여 약탈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외적의 침입을 막느라 명의 국력이 크게 소모되었다.

명 중기 이후에는 환관 세력이 득세하여 정치가 부패하고, 향촌 질서가 해체되어 국가의 기틀이 크게 흔들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력을 장악한 장거정(1525 ~ 1582)은 개혁을 추진하였다. 관료들의 업적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토지 조사를 하였으며(토지 장량), 세금을 은(銀)으로 내게 하는 일조편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국가 재정이 호전되는 등 중흥의 기운이 나타났다. 하지만 장거정이 죽은 뒤 그동안 억눌렸던 관료와 신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환관 세력의 전횡으로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해졌다.



## ① 계해약조(『미래엔 교과서』, p.87)

- 대마도 도주에게 매년 200석의 쌀과 콩을 하사한다.
- 대마도주는 매년 50척의 배를 보낼 수 있고, 부득이하게 보고할 일이 있으면 정해진 숫자 외에 특송선을 보낼 수 있다.
- 부산포, 제포, 염포 등 3포에 머무르는 날짜는 20일로 한정하고, 간수인(看守人)은 50일로 하며 이들에게 식량을 지급한다. - 『증정교린지』

## ② 조선의 군역 문란(『금성 교과서』, p.89)

백성들의 고생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 보병이 한 번 군역에 복무하는 데 드는 값이 배 150필까지 되므로 가난한 백성이 파산하여 집안이 망하고, 두 번 복무하면 지탱할 수 없어 도망쳐 흩어집니다. 도망치면 그 친척에게 거두기 때문에 친척도 지탱하지 못하고 모두 흩어집니다. - 『중종실록』, 중종 32년(1537)

## ③ 일본의 조총 전래(『미래엔 교과서』, p.88)

덴분(天文) 12년(1543)에 말이 통하지 않는 괴상한 생김새의 사람들을 태운 배가 표류하다가 다네가시마에 도착하였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오봉이라고 하는 명나라 유생이 필담으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배 안의 손님은 ‘서남 야만족 상인(포르투갈인)’ 이었다. 상인의 우두머리가 갖고 있던 길이 2, 3척의 낫선 무기는 굉음과 함께 탄환을 표적에 적중시키는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 다네가시마 도키타카는 그 철포를 넘겨받자마자 사격 기술을 익히고, 이듬해에는 제조법도 부하들에게 습득시켰다. 그 후 철포는 빠르게 전국으로 퍼졌다. - 『넛포기』(1606)

## ④ 도검 몰수령의 시행(『비상 교과서』, p.88)

백성들이 도(刀), 단도, 활, 창, 철포, 기타 무기·무구류를 소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그 이유는 불필요한 무구류를 백성들이 가지고 있으면 연공 등의 납입을 꺼리거나, 혹은 봉기를 일으켜 다이묘에게 토지를 받은 자에게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 거두어들인 무기들은 대불을 건립하는 데 못, 껌쇠의 재료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 시마즈가 문서 353호

## ⑤ 북로남왜의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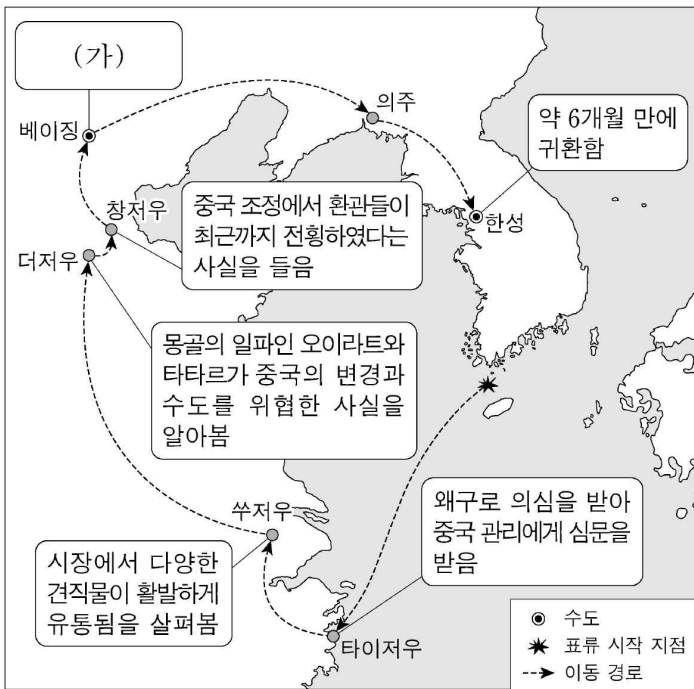
- 가정 29년(1550)에 타타르의 **알탄**이 군대를 백묘(白廟)로 이동시켜 고북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함주아가 거짓으로 적이 이미 물러갔다고 말하여 변경의 방비를 느슨하게 하니, 알탄은 마침내 합자동·조유구를 경유하여 들어와 곧바로 베이징 지역을 침범하였다.
- 가정 32년(1553) 3월에 왕직이 여러 왜구들을 결집하여 대거 노략질하였는데, 수백 척의 전함이 연이어 바다를 뒤덮었다. 절동, 절서, 강남, 강북 연해의 수천 리에서 동시에 왜구가 출몰했다는 긴급 상황이 보고되었다. 왜구는 창국위를 격파하였다.

**개념 Check**

- ①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1543년 수용된 ( )은 센고쿠 시대의 세력 판도에 변화를 가져왔고, 1549년에는 크리스토포가 전래되었다.
- ② 오이라트부에 의해 발생한 1449년의 ( ) 이후 명은 만리장성을 개축하였다.
- ③ 장거정(1525 ~ 1582)은 수취 제도를 개혁하여 세금을 은(銀)으로 징수하는 ( )을 확대 시행하였다.
- ④ 조선의 사림은 ( )를 겪으면서도 향촌 사회에서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 ⑤ 일본은 1467년 ( )을 계기로 100여 년에 걸친 센고쿠(戰國) 시대의 혼란이 지속되었다.
- ⑥ 1575년 ( ) 전투에서 오다 노부나가 이끈 연합군이 조총을 이용하여 다케다 가쓰요리의 기마 부대를 격파하였다.
- ⑦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 )을 시행하여 무사만이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최후의 표류와 귀환 >



- ① 금과의 강화 추진에 반대하는 장수를 만남
- ② 『사고전서』의 편찬에 참여하는 한쪽 지식인을 봄
- ③ 쩌흥다오의 군대와 싸우고 돌아온 병사를 목격함
- ④ 조공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류큐 사신과 대화함
- ⑤ 화번공주를 맞이하러 온 토번 사신 일행을 구경함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덴쇼 16년 7월 (가) 이/가 농민들의 반란을 방지하고 이들의 신분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규슈 지역의 다이묘에게 보낸 문서입니다.

작성 일자와 인장

농민들은 오로지 경작에만 힘쓸 것

몰수한 무기는 사찰 건립에 사용

농민들의 무기 소지 금지

- ① 벽제관 전투에서 패하였다.
- ② 오닌의 난에서 활약하였다.
- ③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였다.
- ④ 사르후 전투에 참여하였다.
- ⑤ 대월(베트남)을 점령하였다.

▶ 밑줄 친 '개혁' 을 추진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후베이성 출신으로 호는 태악, 시호는 문충이다. 재상 격인 내각 수보에 올라 어린 만력제를 보좌하며 개혁을 추진하였다. 밖으로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안으로는 새로운 조세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재정을 충실히 하는 한편 관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10년 뒤 발발한 임진왜란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고, 환관 세력이 득세하면서 정치적 혼란도 가중되었다.

- ① 한국 -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 ② 한국 - 일본과의 무역 창구인 왜관을 초량으로 옮겼다.
- ③ 중국 - 홍타이지가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청으로 고쳤다.
- ④ 일본 - 센고쿠 다이묘들이 조총을 활용하여 각축을 벌였다.
- ⑤ 베트남 - 쩌흥다오의 활약으로 몽골군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요토미 히데요시[관백(關白), 1537 ~ 1598]의 팽창 정책 : 16만여 명의 병력으로 조선 침략(1592. 4. 13)</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 초기 : 일본군의 우세 → 오랜 내전을 통해 얻은 풍부한 전투 경험과 조총(鳥銃)의 위력을 바탕으로 연이어 승리 : 부산진 전투(4. 14), 탄금대 전투(4. 28), 한성 함락(5. 2), 평양 함락(6. 15)</li> <li>• 선조(㉔, 재위 1567 ~ 1608)의 <u>평양 피란</u>(4. 29) ⇨ <u>의주 피란</u>(6. 11) ⇨ 명에 원군 요청</li> <li>• 각지에서 의병 봉기,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한산도 대첩, 7. 8)으로 전쟁의 양상 변화</li> <li>• <u>베이징의 울타리인 요동이 위협받을 것을 염려한 명의 참전</u> : 1차 파병(조승훈), 2차 파병(이여송, 12月) →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전으로 확대</li> <li>• <u>조·명 연합군의 평양성 수복</u>(1593. 1. 3) ⇨ <u>명군의 벽제관 전투 패배</u>(1593. 1. 27) ⇨ 한성 탈환에 실패, 전쟁의 교착 상태</li> <li>• 행주 대첩(1593. 2. 12) ⇨ 한성 수복(1593. 4. 18)</li> <li>• 명과 일본 사이에 강화 협상 시작(1593. 5月) ⇨ 일본의 과도한 요구로 협상 결렬(1596)</li> <li>• <u>정유재란</u>(일본군의 재침, 1597. 1月) ⇨ 칠천량 해전(1597. 7. 15) ⇨ 직산 전투(1597. 9. 7) ⇨ 명량 대첩(1597. 9. 16)</li> <li>• 도요토미 히데요시 병사(1598. 8. 18) ⇨ 노량 해전(1598. 11. 18) ⇨ 전쟁 종료</li> </ul>	
결과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의 쇠퇴 ⇨ <u>후금(1616)의 성장</u></li> </ul>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 황폐화, <u>명을 숭상하는 분위기 고조</u>[<u>재조지은(再造之恩)</u>]</li> <li>• 광해군(㉕, 재위 1608 ~ 1623)의 전란 수습 정책 : 양안(토지 대장)과 호적(인구 대장) 재정비, 불에 탄 궁궐과 성곽 수리, 『동의보감』 간행(1613)</li> <li>• <u>항왜인</u>[<u>降倭人</u>, 귀순 왜장 사야가(김충선)], <u>항왜촌</u>(降倭村), <u>시문용</u>[<u>조선에 귀화한 명(明)의 장수</u>, 왕릉 조성에 기여]</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쿠가와 이에야스(1542 ~ 1616) : <u>세키가하라 전투</u>(⇨ 서군 대장 이시다 미쓰나리, 1600) 승리 ⇨ <u>에도 막부 수립(1603)</u></li> <li>• <u>문화 발전</u> : <u>성리학의 이해 심화(강항)</u>, <u>도자기 발달(이삼평·백파선, 아리타야키)</u></li> <li>• 조선과 국교·교역 재개 : 포로 송환 협의(1604), 회담겸쇄환사 파견(1607·1617·1624), 조선통신사 재개(1607 ~ 1811), <u>기유약조(1609)</u></li> </ul>

① **일본이 요구한 주요 강화 조건**\*\*('천재·금성 교과서', p.89·91)

- 명 황제의 딸을 일본 천황과 결혼시킬 것
- 명과 일본 양국의 전권대신이 통교를 서약하는 문서를 교환할 것
- 조선의 남부 4도(경상, 전라, 충청, 경기)를 일본에 할양할 것
- 일본과 명의 무역을 재개하여 관선과 상선을 왕래하도록 할 것
- 조선 왕자 한 명을 일본에 볼모로 보낼 것
- 조선의 중신이 일본에 영원한 항복을 서약할 것

- 『선조실록』(1596. 4. 10)

② **명의 참전 목적**①('금성·비상 교과서', p.101·93)

조선은 동쪽 변방에 끼어 있어 우리(명)의 왼쪽 겨드랑이와 가깝습니다. 평양은 서쪽으로 압록강과 인접하고 진주는 직접 등주를 맞대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이 조선을 빼앗아 차지하여 라오둥을 옛본다면 1년도 안 되어 베이징이 위협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을 지켜야만 라오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왕재진, 『해방찬요』

③ **명의 참전 목적**\*\*('금성 교과서', p.90)

신이 근심하는 것은 조선이 아니라 우리나라(명) 국경입니다. …… 라오둥은 베이징의 팔 같은 것이고, 조선은 라오둥의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 200년 동안 푸젠성과 저장성이 항상 왜(왜구)의 화를 입었으나, 랴오양과 텐진에 왜가 없었던 것은 조선이 울타리처럼 막았기 때문입니다.

- 『선조수정실록』

④ **임진왜란·정유재란의 피해**('천재 교과서', p.91)

- 적군의 배(일본 배)에 강제로 태워져 순천 앞바다까지 가는 동안 600 ~ 700척의 배가 바다를 메우고 있었다. 이들 배에는 우리나라의 남녀가 일본인과 거의 같은 수로 있었는데, 배마다 나오는 통곡 소리가 바다와 산을 진동시킬 정도였다. - 강항, 『간양록(看羊錄)』
- 일본 나고야성에 도착한 사타케 요시노부는 “농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여자나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죽여도 좋다. 마을이 폐허가 되어도 상관 없다.” 라고 지시하였다. 그렇게 해서 사타케군이 인부로 동원한 일반 백성은 약 1,500명이었다. 탈주자가 생기자 죽여서라도 탈주를 막으려고 하였다. - 『마주 보는 한일사』(2007)



▶ 정묘호란(1627)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해군(15, 재위 1608 ~ 1623)의 중립 외교(명 ~ 후금)</li> <li>: 명(明)의 출병 요청 수락 → <b>사르후 전투(1619)</b>, 강홍립(1560 ~ 1627)의 투항</li> <li>• <b>인조반정(1623)</b></li> <li>: 광해군의 대내외 정책에 반감을 품은 서인 일파의 정변</li> <li>: <b>광해군 폐위</b>, 인조(16, 1623 ~ 1649) 즉위</li> <li>• 서인 정권의 친명배금(親明排金) 정책</li> <li>: <b>가도 사건</b>[<b>가도도독부 도독 모문룡(1622 ~ 1629)에 대한 지원 강화</b>]</li> <li>• 이괄의 난(1624)과 잔여 세력의 후금 투항</li> <li>• 후금의 선양(瀋陽) 천도(1625)</li> <li>• 영원성 전투(1626)에서 누르하치(1559 ~ ) 사망</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금 흥타이지(재위 1626 ~ 1636)의 침략 ⇨ 인조의 강화도 피란 ⇨ 황해도 평산(平山)까지 침입, 2개월간 지속</li> </ul>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묘약조(1627)</b></li> <li>: 명의 위협 등을 의식한 후금이 조선과 <b>형제의 맹약</b>을 맺고 철수 → 조공 지급, 개시무역(開市貿易) 실시</li> </ul>	

▶ 병정노란(1636. 12月 ~ 1637. 1月)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금의 <b>칭제건원(稱帝建元)</b>, 국호를 청(淸)으로 변경(1636), <b>조선에 군신관계 요구</b></li> <li>: 주화론(主和論)과 척화주전론(斥和主戰論)의 대립 ⇨ 척화론의 우세와 군신관계 요구 거부 ⇨ 태종(肅穆帝, 재위 1636 ~ 1643)의 침략</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일 만에 한성 함락 ⇨ <b>인조의 남한산성 피신</b> ⇨ 왕비와 왕족이 피란해 있던 강화도 함락 ⇨ 각지에서 올라오던 구원군의 패배</li> </ul>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 청 → <b>조공·책봉의 군신관계 체결</b></li> <li>: <b>삼전도의 굴욕</b>(삼계구고두), <b>명과 관계 단절</b>, 명과의 항쟁에 필요한 물자 제공, 청태종공덕비 건립(= 삼전도비, 1639), <b>연행사(燕行使) 파견</b></li> <li>: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척화론자 등 압송 → <b>심양관</b>(『소현심양일기(昭顯瀋陽日記)』, 1637 ~ 1644) ⇨ 베이징(1644 ~ 1645)</li> <li>: 환향녀(속환녀), 반청 의식 고조(대명거사, 승정처사)</li> <li>• 이자성 반란군(1631 ~ )의 베이징 점령 ⇨ <b>명 멸망(1644)</b> ⇨ <b>산해관 전투</b>(이자성 ⇨ 청 ~ 오삼계 연합군) ⇨ <b>청, 베이징 입성(1644)</b></li> </ul>

## ① 일본 교과서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한 기술(『천재 교과서』, p.92)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에 조공하고, 명을 침공할 때 앞장서라고 조선에 요구하였다. 조선이 이를 거절하자, 1592년(분로쿠 원년) 조선에 16만 여의 대군을 보내 침략 전쟁을 시작하였다(분로쿠의 역). …… 명으로부터 원군이 도착하고, 각지에서 조선 민중이 의병을 일으켰다. …… 히데요시는 명과의 강화 교섭을 위해 휴전했지만, 교섭은 결렬되었다. 1597년(케이초 2), 히데요시는 다시 조선과 전쟁을 시작하였다(케이초의 역). - 『신선 일본사 B』

## ② 청 태종

만주의 신(臣)이 감히 하늘과 땅에 고합니다. 저와 같은 하찮은 존재가 칸의 자리를 계승한 이래 대도(大道)를 위하여 항상 힘쓰기를 10년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자비로 몽골을 하나로 통합하고 옥새와 강토를 얻었습니다. …… 못 사람들의 뜻을 따라 황제의 존호를 받아들이고 국호를 고쳐서 대청, 연호를 개원하여 송덕(崇德) 원년으로 하였습니다.

## ③ 최명길(1586 ~ 1647)의 주화론(『천재 · 금성 교과서』, p.90 · 93)

주화(主和), 이 두 글자가 신의 일평생에 허물이 될 줄 잘 압니다. …… 자신의 힘을 생각지 않고 경망하게 큰소리를 치다가 오랑캐의 노여움을 사서 결국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종묘와 사직이 끊어지게 한다면 그 허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국력은 고갈되었고 오랑캐는 병력이 강성합니다. 정묘년 때의 맹약을 지켜서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춰야 합니다. 그 사이 어진 정치를 베풀어 민심을 수습하고 성을 쌓고 군량을 저축해야 합니다. - 『지천집』

## ④ 윤집(1606 ~ 1637)의 척화론(『천재 · 금성 · 미래엔 교과서』, p.90 · 93 · 95)

천조(명)는 우리나라에 부모의 나라이고…… (후금과) 형제의 의를 맺음으로써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임진년의 일은 작은 것조차도 황제의 힘이니, 우리나라가 살아 숨쉬는 한 은혜를 잊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오랑캐의 세력이 크게 확장하여 명의 수도를 핍박하고 황릉을 더럽혔는데…… 병력이 미약하여 정벌에 나가지 못하였지만, 차마 이런 시기에 어찌 다시 화의를 제창할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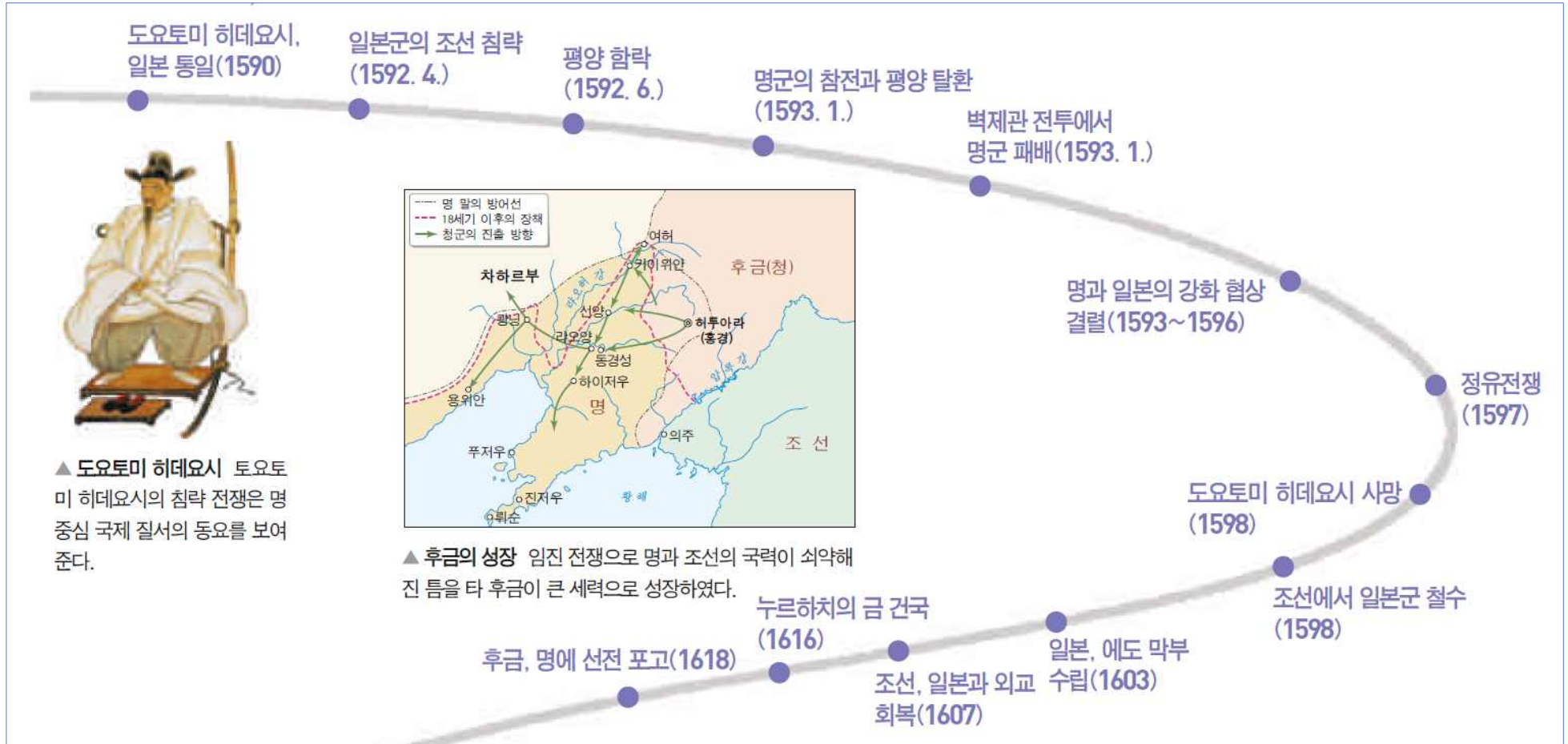
- 『인조실록』, 1636. 11. 8

## ⑤ 『화이변태(華夷變態)』, 1674

송정제가 사망하고 (남명을 수립한)홍광제는 달로(撻虜, 여진)에게 패하였다. 당왕이라든가 노왕이 겨우 남쪽 귀퉁이를 보존할 뿐 중원은 달로가 횡행하고 있다. 이것은 화(華)가 이(夷)에 의해 대체되는 사태이다. …… 최근에 오삼계나 정경이 각 성에 격문을 날려 (명 왕조)회복을 위한 군병을 일으켰다. 그 승패의 행방은 듣지 못했지만, 만약 이가 화를 대신하는 사태가 된다면, 비록 이역의 일이라고는 해도 이 어찌 상패한 일이 아니겠는가?

Check!

동아시아의 전쟁과 정세의 변화



▲ 도요토미 히데요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 전쟁은 명 중심 국제 질서의 동요를 보여 준다.



▲ 후금의 성장 임진 전쟁으로 명과 조선의 국력이 쇠약해진 틈을 타 후금이 큰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Check!

동아시아의 전쟁과 정세의 변화



지역(나라)	임진왜란	병자호란
중국 본토 · 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의 약화</li> <li>• 여진족의 성장 → ( )의 건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 멸망</li> <li>• ( ) 중심의 국제 질서 수립</li> </ul>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에 대해 ( )의 인식 강화</li> <li>• 일본과 국교 재개 → ( ) 파견</li> <li>• 인조반정 이후 ( )의 외교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과 조공 · 책봉 관계</li> <li>↳ ( ) 파견</li> <li>• ( )과 조선중화주의 의식 대두</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 막부 성립(1603)</li> <li>• 조선과 국교 재개, 명 · 청과 정식 국교를 맺지 않음</li> </ul>	

Check!

동아시아의 전쟁과 정세의 변화(연도 확인)

- 임진왜란
- 인조반정

- 정유재란
- 정묘호란

- 에도 막부 수립
- 명 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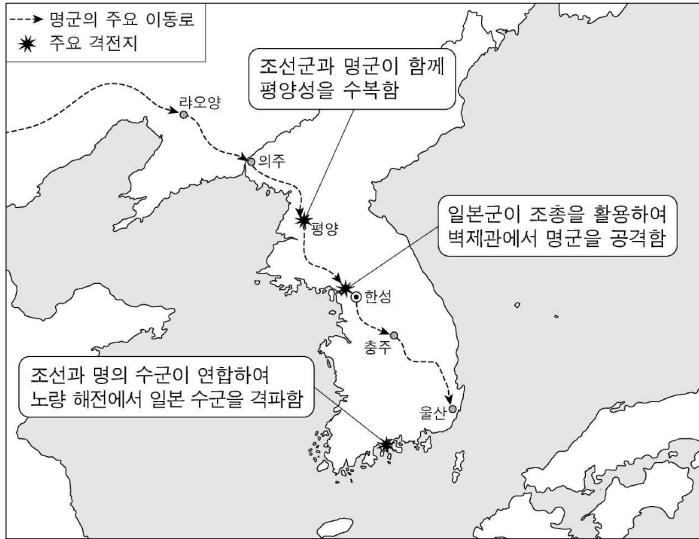
- 후금 건국
- 병자호란



개념 Check

- 1 평양성 탈환 이후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은 ( )에서 일본군에 대패하여 한성 탈환에 실패하였다.
- 2 조선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인 1609년 ( )를 체결하여 일본과 교역을 재개하였다.
- 3 누르하치는 ( )를 조직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 )을 건국하였다.
- 4 ( )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추진하였다.
- 5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집권한 서인 세력은 가도에 주둔하던 명의 장수 (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6 병자호란의 결과 청에 굴복하여 ( )에서 인조가 항복 의식을 거행하였다.

▶ 다음 전쟁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기유약조가 체결되었다.
- ② 몽골족이 베이징을 공격하였다.
- ③ 모문룡이 가도를 근거지로 삼았다.
- ④ 강홍립이 사르후 전투에서 투항하였다.
- ⑤ 일본이 조선 남부 4도 할양 등을 요구하였다.

▶ 밑줄 친 ‘전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축년 5월 17일(갑신) 맑음

그들은 이번 전란에서 사로잡은 우리 백성들을 사고 팔기 위해 심양(선양) 성문 밖에 모아 놓았다. 그 수가 수만 명인데, 혈육이 상봉하여 부여잡고 울부짖으니 곡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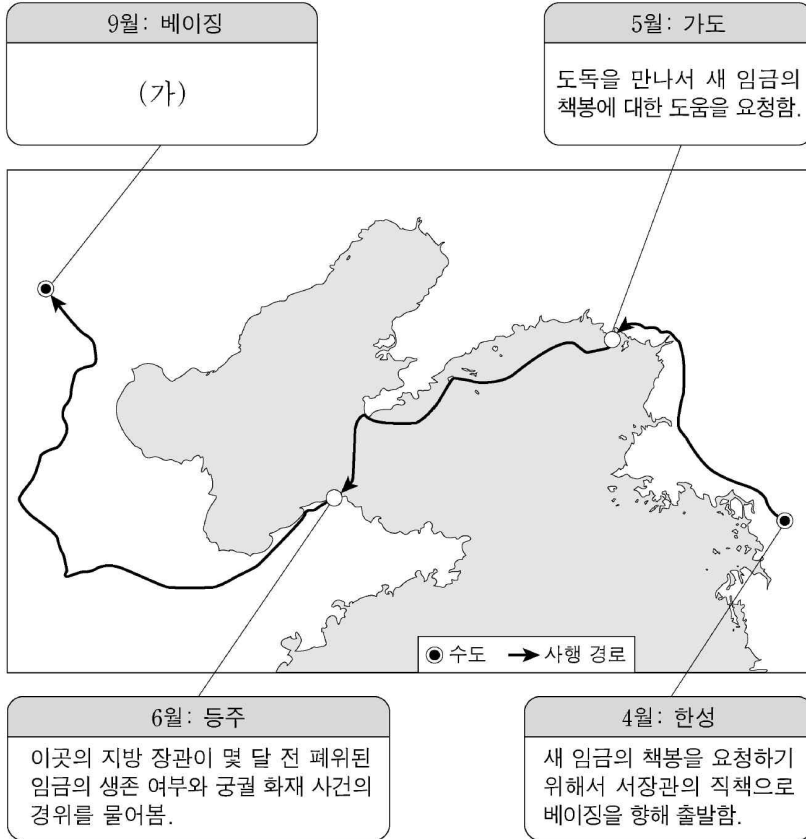
역관 정명수가 황제의 명으로 와서 “황제께서 내일 소현 세자를 만나 보고자 하시니, 마땅히 관복을 갖추어 입고 가서 뵈십시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세자께서는 산성에서 나와 곧장 이국땅으로 오셨는데 관복을 어느 겨를에 가져 왔겠습니까?”라고 항변하였다.

-『소현심양일기(昭顯瀋陽日記)』-

- ① 한인 무장 출신인 오삼계 등이 일으켰다.
- ② 벽제관 전투 이후 전황이 교착 상태가 되었다.
- ③ 조선과 명의 국교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④ 가도에 주둔한 모문룡을 지원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
- ⑤ 조선의 남부 4도 할양 등이 강화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민성의 ○○○○년 사행 기록>



- ① 조선에서 정묘호란이 발발하였다는 전갈을 받음.
- ② 호리즘을 정복하기 위해 출정하는 군대를 목격함.
- ③ 일본에서 센고쿠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음.
- ④ 대월의 쩌흥다오 군대와 전쟁을 하고 돌아온 병사를 만남.
- ⑤ 후금과 명의 군대가 변경에서 대치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함.

▣ 16 ~ 17세기 동아시아의 사건 전개

삼포왜란(\_\_\_\_년) → 포르투갈 마카오 조차(\_\_\_\_년) → 에스파냐의 마닐라 점령(\_\_\_\_년) → 나가시노 전투(\_\_\_\_년) → 정유재란(\_\_\_\_년) → 세키가하라 전투(\_\_\_\_년) → 기유약조 체결(\_\_\_\_년) → 오사카 전투(1614) → 영원성 전투(1626) → 병자호란(\_\_\_\_년)

▶ 병자호란 이후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과 국교를 끊고, 청과 조공·책봉 관계 수립(16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이 명을 공격할 때 군사적 지원 강요</li> </ul> </li> <li>• 효종(㉗, 재위 1649 ~ 1659) 대 <b>북벌</b>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인 <b>송시열</b>(1607 ~ 1689)의 기축 봉사[존주대의(尊周大義)·<b>복수설치(復讎雪恥)</b>, 16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으나 중화 문명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자부하는 <b>조선 중화주의</b> 확산</li> </ul> </li> </ul> </li> <li>• 비변사(1517 ~ )의 기능 강화, 5군영과 속오군 등 군사 조직 정비</li> <li>• 농민의 생활 안정과 국가 재정의 확보를 위해 영정법, <b>대동법(1608 ~ )</b>, 균역법 등 수취 제도 시행</li> <li>• 노비의 도망이나 군공, 납속책 등으로 양천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신분제 형성</li> </ul>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을 제압하고 중원 공략에 전념</li> <li>• 이자성의 농민군이 명을 무너뜨린 틈을 타 <b>베이징 점령(오삼계 안내, 1644)</b>, 팔기병과 투항한 한인·몽골인 부대를 앞세워 중원 장악</li> <li>• <b>강희제</b>(㉔, 재위 1661 ~ 1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 부흥 운동 ⇨ 남명 수립(홍광제, 1644) ⇨ 남명 정복(1662) ⇨ 영력제(㉕, 재위 1646 ~ 1662)의 도주 ⇨ 정무제(㉖, 재위 1662 ~ 1664)</li> <li>: <b>삼번의 난</b>(오삼계·상지신·경정충, <b>1673 ~ 1681</b>) 진압, 타이완의 정씨 세력[<b>정성공(1624 ~ 1662)·정경의 난, 1661 ~ 1683</b>] 제압</li> <li>• <b>건륭제</b>(㉖, 재위 1735 ~ 17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티베트, 신장, 몽골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영토 확보 →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으로 성장</li> </ul> </li> </ul> </li> </ul>

Check!

중화 의식의 변화 - 자국 중심의 중화주의

병자호란(1636)과 명(明)의 멸망(1644)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지난 200년 동안 명 주도의 국제 질서를 규정한 화이론(華夷論)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면에서 나타났다. 송시열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조선 중화주의**를 내세우며 조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송시열이 쓴 ‘해동(조선)의 하늘과 땅은 주(周)나라를 높이 받드는 것이 대의이다.’ 라는 이 여덟 글자는 조선 중화주의의 대표적 인물인 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청의 옹정제**(㉕, 재위 1722 ~ 1735)는 **1729년 『대의각미록』을 간행하여, 오랑캐라 하더라도 천명을 받으면 중원을 지배할 수 있다며 만주족의 중원 지배를 합리화하였다.** 비슷한 시기 일본의 **야마자키 안사이**(1619 ~ 1682)는 **일본형 화이관**을 내세우며 만세 일계의 신국으로서 일본의 중화적 정체성을 설명하였다. 이 시기 청, 조선, 일본은 모두 자신이 속한 집단을 중화로 인식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에서 많은 서적과 구리 활자, 불화 등을 약탈</li> <li>• 유학자와 도공, 목수, 한지 제작공, 인쇄공 등의 기술자를 포로로 압송 → 에도 시대의 학문과 기술 발전에 이바지</li> <li>• 청 중심의 조공·책봉 체제에서 벗어나 있었으므로 청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음</li> </ul>
<p>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를 비롯한 새로운 작물 전래 → 상품 작물로 널리 재배, 연초 산업 발달</li> <li>• 임진왜란·정유재란 이후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고, 에도 막부에 <b>통신사(通信使)</b> 파견(1607 ~ 1811) : 200년 동안 12회에 걸쳐 파견, 양국 우호 관계의 상징, 학술과 문물의 교류 촉진, 고구마 도입[조엄, 1764년(영조 40)]</li> <li>• 임진왜란 당시 명군의 영향으로 관우 신앙 확대와 동묘 건립, 은(銀) 유통</li> <li>• 청에 불모로 가 있던 <b>소현 세자(1612 ~ 1645)</b>는 <b>독일 선교사 아담 샬과 교류</b>하고, 천문학과 천주교에 관한 책 등을 가지고 귀국(1645)</li> <li>• 병자호란 이후 청과 조공·책봉 관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b>연행사(燕行使)</b> 파견 : 연행사 등을 통하여 점차 청의 문물을 접한 후 <b>북학 운동</b> 추진 → 천리경을 비롯한 천문 기구와 <b>시헌력(아담 샬, 1645)</b> 전래</li> </ul>



## ① 중화 의식의 변화①(『미래엔 교과서』, p.95)

천하가 모두 오랑캐를 따르지만, 우리나라만은 명나라의 제도를 고치지 않으니 청나라도 우리를 예의의 나라라 하여 감히 예의에 벗어난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못합니다. 이 하늘 밑에 우리만이 동주(東周)를 위하고 있는데, 귀국(일본)에서도 중화의 것을 쓸 용의가 있습니까?

- 통신사 조태억과 아라이 하쿠세키의 필담(1711)

## ② 중화 의식의 변화②(『천재·미래엔·비상 교과서』, p.97·93·95)

- 오랑캐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변방에 거처하여 중원과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원에 태어났다고 하여 중화가 되는 것이 아니며, 변방에 태어났다고 하여 중화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 중화인은 인의를 아는 것이고, 오랑캐는 윤리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하니 어찌 태어난 곳이 중원이나 아니냐를 가지고 중화인과 오랑캐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 오정제, 『대의각미록』
- 사람은 마음으로 어둠과 의로움을 알고 금수에게는 윤리가 없다. 어찌 (태어난) 곳이 중국 땅인가 그 바깥인가를 따져서 사람과 금수를 나눌 수 있겠는가? …… 순임금은 동이였고 (주나라) 문왕은 서이였다. 이러한 것이 어찌 그들의 거룩한 덕에 손상을 입혔겠는가? - 오정제, 『대의각미록』

## ③ 박지원(1737 ~ 1805)의 북학론(『비상 교과서』, p.92)

우리는 저들(청)과 비교하여 한 치도 나은 점이 없다.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스스로 천하제일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중국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제도마저 배척해 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장차 어디에서 본받아 행하겠는가.

- 『연암집(燕巖集)』

## ④ 통신사와 문화 교류(『미래엔 교과서』, p.94)

- 작은 배를 타고 오사카에서 출발하여 큰 배로 옮겨 탔다. 이날 쇄환된 사람은 120여 명이였다. - 오윤겸, 『동사상일록』(1617)
- 돌아가는 길에 고구마를 구해서 동래의 관리에게 줄 예정이다. 문익점이 목화를 퍼뜨렸듯이 이것들을 다 살려서 우리나라에 널리 퍼뜨린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하겠는가. - 조엄, 『해사일기』(1763 ~ 1764)

Summary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과 국제 질서의 재편

16세기 서양 세력의 진출

포르투갈

: 몰라카 정복(1511) → 조총 전래(1543) → 크리스티교 선교(1549) → 마카오 조차(1557)

에스파냐

: 필리핀 진출(1521) → 마닐라 차지(1571)

명(1368~1644)

- ① 토목의 변(1449), 경술지변(알탄칸, 1550)  
동남 해안 → 왜구 침략(1547 ~ )
- ② 쌀·은 유통 → 빈부격차, 세금 부담
- ③ 장거정 개혁 - 일조편법 확대 실시(1573)  
(1572 ~ 1582)

조선

- ① 훈구(공신, 대토지) ↔ 사림(향촌) : 사화  
↳ 봉당(1575 ~ )
- ② 평화 지속(군사력 약화, 수취 제도 문란)

일본

- ① 센고쿠 시대(다이묘, 분열, 조총)
- ② 통일(도요토미)
  - 토지 조사(검지), 석고제
  - 도량형 통일
  - 무기 물수령(도수령)
  - 무사·상공업자·농민
  - [신분 이동 금지]
  - 병농 분리
  - [조카마치(무사, 상인)]

영향

- ① 朝 : 국토 황폐화, 명(明)에 대한 사대[재조지은(再造之恩)] 강화
- ② 明 : 쇠퇴 → 재정 악화, 환관 횡포, 농민 봉기
- ③ 日 :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키가하라 전투(1600) → 에도막부(1603) \*정묘호란(1627)  
포로[도공(이삼평, 백파선, 아리타야키), 성리학(강항)]  
통신사 재개(1607), 회담검쇄환사, 기유약조(1609)
- ④ 여진 : 누르하치, 팔기제, 후금 건국(1616), 명(明) 공격

임진왜란(1592)

↳ 일본, 정명향도 요구 → 조선 거부

- ① 부산 상륙(4月), 초반 일본 승리(조총)
- ② 선조 평양(4月), 의주(6月) 피난, 수군 활약
- ③ 조·명 연합군 → 평양성 탈환(1593. 1月)
- ④ 명, 벽제관 전투 패 → 휴전 협상 → 일본의 무리한 요구로 결렬
- ⑤ 정유재란(1597) : 일본군의 재침
- ⑥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1598. 8月) → 철수
- ⑦ 이순신, 노량해전(1598. 11月)

광해군, 중립외교(명의 출병 요청 수락)  
↑(반정) ↓ 강홍립 투항(1619)  
인 조, 친명배금 → 후금 반발

병자호란(1636)

- ① 후금 → 청(1636), 칭제건원
- ② 청, 조선에 군신관계 요구
- ③ 남한산성 항전
- ④ 삼전도의 굴욕  
: 인조, 삼배구고두

병자호란 이후

- 중
  - ① 명 멸망(이자성의 난, 1644)
  - ② 청, 베이징 입성(오삼계, 1644)
  - ③ 강희제, 삼번의 난(1673 ~ 81)  
정성공의 난(1661 ~ 83)

- 조선
  - ① 북벌론, 효종(재위 1649 ~ 1659)
  - ② 조선 중화주의 확산
  - ③ 청에 조공 사절(연행사) 파견
  - ④ 초량 왜관 설치(1678)

- 에도
  - 명·청과 조공책봉의 관계 X
  - 조선·류큐와 국교 유지

**개념 Check**

- ① 효종(17, 재위 1649 ~ 1659) 시기에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기 위해 청을 정벌하자는 ( )이 대두하였다.
- ② 청의 강희제(4, 재위 1661 ~ 1722)는 오삼계, 경정충 등이 일으킨 ( )과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제압하였다.
- ③ 1637년 청에 인질로 끌려간 소현 세자는 서양인 선교사 ( )과 교류하였다.
- ④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 )를 파견하였다.
- ⑤ 명의 멸망 이후 청, 조선, 에도 막부에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 )로 인식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기) 왕조 시기 동아시아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영의정이 임금께 아뢰었다. “지금 오삼계를 비롯한 남방의 변왕들이 옛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군사를 내어 [가]을(를) 도와서 이들을 친다는 것은 의리상 차마 하지 못할 일입니다. 게다가 옛 나라가 부흥하여 그 죄를 묻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해명할 말조차 없을 것입니다.

<보기>

- ㄱ. 한국 - 연행사가 중국에 파견되었다.
- ㄴ. 한국 - 삼포(3포) 왜란이 발생하였다.
- ㄷ. 중국 - 천계령이 해제되었다.
- ㄹ. 일본 - 기유약조가 체결되었다.

- ① ㄱ, ㄴ
- ④ ㄴ, ㄹ

- ② ㄱ, ㄷ
- ⑤ ㄷ, ㄹ

- ③ ㄴ, ㄷ

안타깝도다! 것처럼 넓은 땅과 많은 인구를 지녔음에도, 명나라가 갑신년(1644) 3월에 멸망을 맞이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 그 뒤로부터 시간이 흘러 지금에 이르러서는 순(舜)·우(禹) 임금에 돌아보던 땅과 공자·주자가 가르침을 전하던 지역이 모두 옛날과 달라져 오랑캐의 비린내만 가득해졌으니 …… 오직 우리나라만이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어서 홀로 예를 간직한 나라가 되었으니, 주나라 예법이 노나라에 있다고 할 만하다. 공자께서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뗏목을 타고 동쪽 우리나라로 올 것이다.

- 『송자대전(宋子大全)』 권 138, 「황여고실서」

▶ 다음 자료를 활용인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투항한 사야가는 새로운 화약 제조법과 조총 사격 기술을 전수하는 등 많은 업적을 세웠다. 그는 왕으로부터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고, 훗날 정2품 정헌대부에 올랐다.
- 포로로 끌려온 이삼평은 아리타 지역에서 양질의 점토를 발견하고, 자기를 굽는 가마를 만들었다. 그의 명성이 점차 퍼져 나가 많은 장인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는 훗날 ‘도자기의 시조’ 라고 불렸다.

- ① 아스카 문화의 형성 배경을 파악한다.
- ② 전당사를 통해 유입된 선진 문물을 알아본다.
- ③ 전쟁을 통한 인적 교류와 문화 전파를 찾아본다.
- ④ 승려의 구법 활동을 통한 교류 사례를 분석한다.
- ⑤ 몽골 제국 시기 역참을 통한 문물 교류를 조사한다.

▶ 명·청의 해금 정책과 조공 무역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인이 국외로 건너가 무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u>해금 정책</u>(1371 ~ 1567) 실시</li> <li>• <u>조공 무역</u>(朝貢貿易)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u>류큐</u>·대월 등이 정기적으로 조공(朝貢), <u>일본에는 감합(勘合)을 발급하여 교역 허용</u></li> <li>: 공무역(사절단을 통한 조공과 회사의 형식), 사무역(사절단을 구성하는 사행원 중 역관을 중심으로 한 사적인 교역)</li> </ul> </li> <li>• 영락제(3, 재위 1402 ~ 1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정화</u>(환관, 윈난성 출신의 무슬림, 1371 ~ 1433)가 이끄는 함대를 동남아시아 등에 여러 차례 보내(1405 ~ 1433) <u>조공 확대 모색</u></li> </ul> </li> <li>• 은과 동전, 생사(生絲)와 비단 등의 물품을 구하려는 <u>명과 일본의 상인이 왜구로 가장하여 밀무역(密貿易) 자행</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왜구를 적극적으로 토벌하였으나, 밀무역 근절에는 실패</li> </ul> </li> <li>• <u>1567년</u> 이후 상인들의 잇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동남아시아 방면의 도항과 무역 허용 → <u>해금령 완화</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중국인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여 <u>베트남의 호이안, 필리핀의 마닐라 등지에 화교 사회 형성</u></li> </ul> </li> </ul>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남명(南明, 1644 ~ 1662 ~ 1664)과 타이완 정씨 세력에 대한 대책으로 천계령(遷界令) 선포(1661 ~ )</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복속한 후 해제(1684)</li> <li>↳ 청의 상인이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 활발하게 교역</li> <li>↳ 일본의 은 유출 증가 → 에도 막부, 청 상인에게 <u>신포(信牌, 1715 ~ )</u>를 발급하여 무역량 규제</li> </ul> </li> </ul>

▶ 조선의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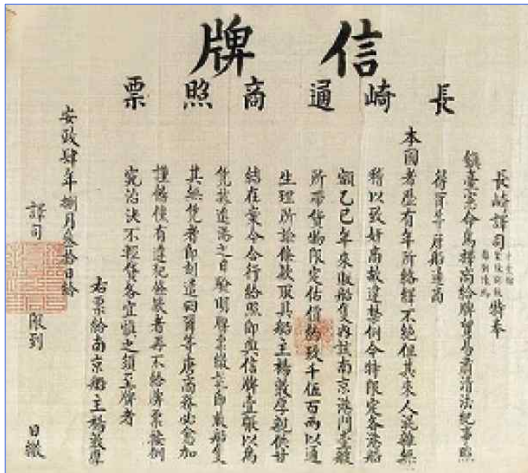
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으로 사절단[<u>조천사(朝天使, 명), 연행사(燕行使, 청)</u>] 파견 → 조공(종이와 붓, 화문석, 인삼 등) &lt; 회사(비단, 약재, 책 등)</li> <li>• 16세기 이후에는 사신을 따라가는 역관이나 상인들에 의해 <u>사무역이 활성화</u>, ex) 연행 팔포 무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계 무역을 통해 일본산 은(銀)과 명·청의 비단을 교환</li> </ul> </li> <li>• <u>청과의 교역</u> → 중강 개시(開市)·후시(後市), 책문 후시</li> </ul>
에도 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리와 유황, 향신료 등 수입 → 쌀과 인삼, 목면, 서적 등을 수출</li> <li>• 쓰시마 번이 조선과의 외교 교섭 관할, 통신사 동행, 400 ~ 500명의 쓰시마 인들이 <u>초량 왜관(1678)</u>에 거주</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류큐, 시암(타이), 자와 등의 상인과 교역</li> </ul>

▣ 푸젠 상인의 호소(『금성 교과서』, p.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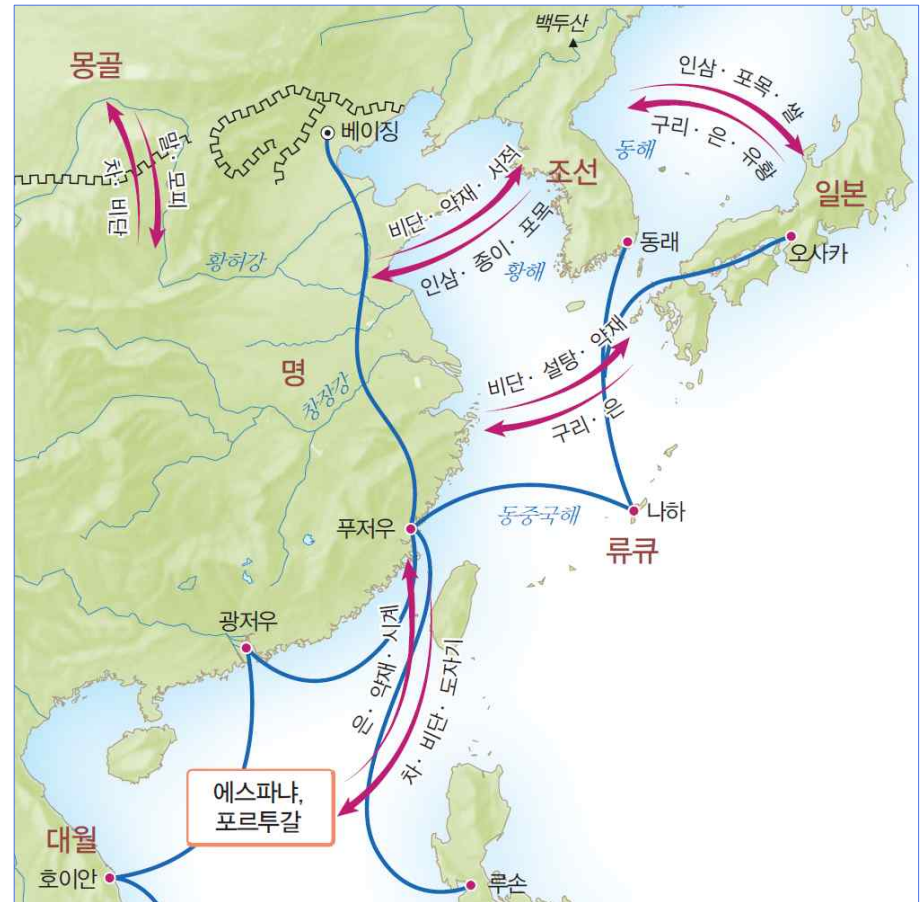
바다는 푸젠(타이완 섬의 북서쪽에 있으며, 중국 남동해안을 따라 위치) 사람들에게 발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 가난한 자들은 생계를 위해 항상 무리지어 바다로 나갑니다. 해금이 엄격해지면 식량을 구할 길이 없어서 해안을 약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해민들은 가만히 앉은 채 속수무책으로 모든 재산을 빼앗깁니다. 아들과 딸은 물론이고 은과 모든 세간을 빼앗기니 피해가 날로 극심합니다.

- 『천하군국리병서』, 푸젠 상인이 제기한 **해금령 관련 탄원서**

▶ 실패(1715 ~ )



▶ 14세기 후반 ~ 16세기 전반의 동아시아 교역



▶ 일본의 무역

무로마치 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의 책봉(1401)을 받은 이후 <u>명과 감합 무역 전개(1404 ~ 1547)</u> : 생사·비단·도자기·서적 등을 수입, 금·동·유황·칼 등 수출</li> <li>• <u>1547년</u> 명과의 조공·책봉 관계(감합 무역) 단절 ↳ 명의 물품을 구하기 위해 밀무역에 종사하는 <u>왜구 창궐</u></li> <li>• 일본 상인의 활발한 해외 진출 → 동남아시아에 무역 거점 마련</li> </ul>
에도 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슈인장(朱印狀, 배를 타고 나가 무역할 수 있도록 막부가 발급한 증명서)을 발급(1604 ~ 1635)하여 교역 통제</u></li> <li>• 슈인장 무역을 통해 다이묘 세력의 성장, 크리스티교 확산과 크리스티교 탄압, 해금 실시 : 크리스티교 금교령(1612) → 시마바라의 난(1637) : 제1차 쇄국령(1633), 슈인장 발급 중단(1635), <u>포르투갈 상인의 입항 금지(1639)</u></li> <li>• 제한적인 무역 허용(나가사키) : <u>데지마 건설(포르투갈 상인, 1636) → 네덜란드 상인 데지마 상관 이주(1641)</u></li> <li>• <u>청과 조공 관계를 맺지 않았으나</u> 청 상인이 나가사키에 와서 교역하는 것은 허용, 조선의 중계를 통해 청과의 간접적인 교역도 성행</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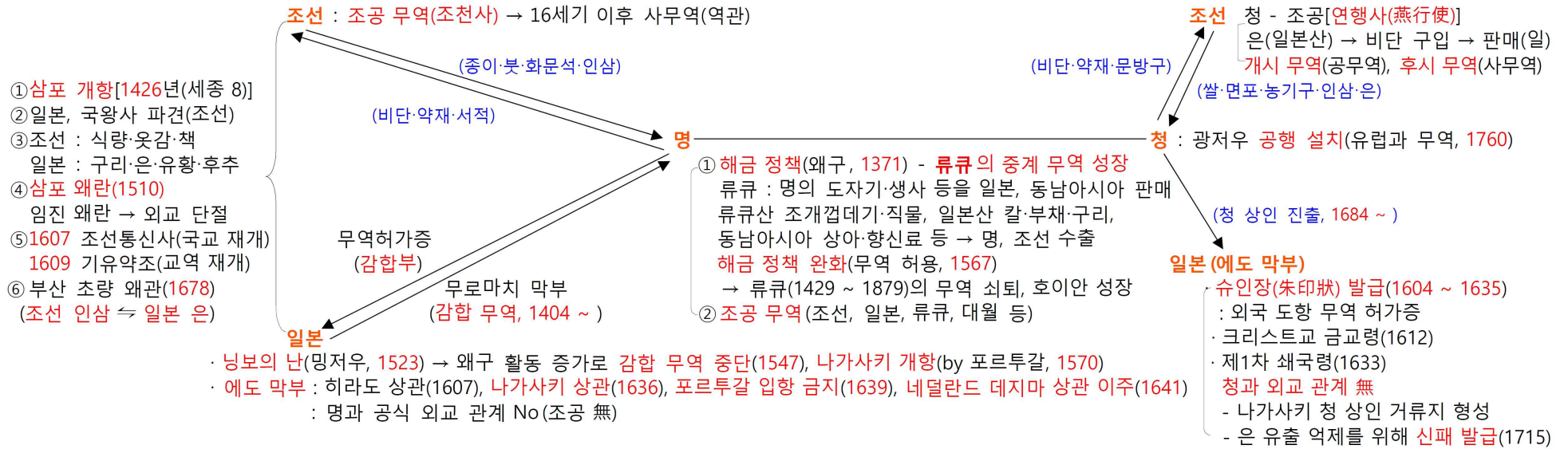
▶ 류큐(유구)\*\*

중계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명과 조공 무역 전개, 중계 무역의 거점으로 성장</u>(∵ 명의 해금 정책, <u>나하</u>, 명의 도자기·생사 등을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지에 수출) : 포르투갈 상인의 진출과 명의 해금 정책 완화로 중계 무역 쇠퇴</li> </ul>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10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라는 남해의 가운데 있는데, 남북으로는 길고 동서로는 짧다. …… 그 땅에서는 유황이 산출되는데, 1년 만이면 다시 구덩이가 차, 아무리 파내어도 한이 없다. 해마다 중국에 사신을 보내고 유황 6만 근과 말 40필을 바친다. …… 해상 무역을 업으로 삼는다. 서쪽으로는 남만, 중국과 교통하고, 동쪽으로는 일본, 우리나라와 교통한다. 일본과 남만의 상선이 국도와 해변 포구에 모이므로, 백성이 포구에 술집을 설치하여 서로 교역한다. - 신숙주, 『해동제국기』(1471) 유구국기</li> <li>• 남해의 이름난 지역으로 삼한(조선)의 빼어남을 모아놓았고, 대명(중국)과 ‘광대뼈와 턱’과 같은 관계이면서 일역(일본)과도 ‘입술과 치아’와 같은 관계이다. 유구는 이들 사이에서 봉래도(蓬萊島, 낙원)이다. 선박이 오가며 만국의 가교가 되고, 외국의 산물과 보배는 온 나라에 가득하다. - 다카라 구라요시, 『류큐 왕국』</li> </ul> </div>
----------	--



Summary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 관계



개념 Check

- ① 명은 조공 사절에 무역 허가증인 ( )을 발급하여 교역하였다.
- ② 명은 ( ) 정책을 실시하여 사무역을 금지하고 조공 형태로만 무역을 전개하였다.
- ③ ( ) 막부는 일본인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자 ( )을 발급하여 교역을 통제하였다.
- ④ 명의 ( ) 정책과 ( ) 무역으로 류큐 상인이 중계 무역을 펼쳐 큰 이득을 얻었다.
- ⑤ 조선은 세종 때 왜구의 근거지인 ( )를 토벌하였다.
- ⑥ 청은 건국 초기 반청 운동을 막고자 1661년 ( )을 선포하였으나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을 진압한 후인 1684년 이를 해제하였다.
- ⑦ 에도 막부는 청 상선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무역 허가증인 ( )를 발행하여 무역 허용량을 미리 정하였다.

▶ 밑줄 친 '우리 나라' 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년에 책봉사가 옵니다. 정사와 부사는 나하에 도착한 후 숙소인 천사관에서 왕궁 등을 오가며 책봉을 비롯한 각종 의례와 연회에 참석합니다. 만약 사절에 변경이 있어 책봉을 받지 못한다면, 도자기와 생사 등을 들여와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되파는 우리 나라에 그보다 더한 우환은 없습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호를 엄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기유약조의 내용을 분석한다.
- ② 실패를 발급한 목적을 알아본다.
- ③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를 탐색한다.
- ④ 슈인장 무역이 중단된 배경을 조사한다.
- ⑤ 명의 해금 정책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 밑줄 친 '증명서' 를 발급한 맥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봉행소의 명을 받들어 중국 상인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하여 무역의 질서를 엄정하게 세우고자 한다. 이에 중국의 각 항구에서 내항하는 선박 수와 무역량을 제한한다. 을사년에 난징에서 내항하는 선박은 1척, 소지 화물의 환산 가격은 9,500량으로 한정하여 통상을 허락한다.

- ① 당에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 ② 명과 감합 무역을 실시하였다.
- ③ 송으로부터 동전을 수입하였다.
- ④ 미국과 화친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⑤ 조선으로부터 회취법을 처음 도입하였다.

▶ 밑줄 친 '50여 년간'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토에서는 무인년 겨울에  
랴쿠오로 연호를 바꾸었다.  
남쪽 요시노에서는 본래대로  
엔겐을 연호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후 각지에는 두 개의 연호가  
제멋대로 뒤섞여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많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다.

-『신황정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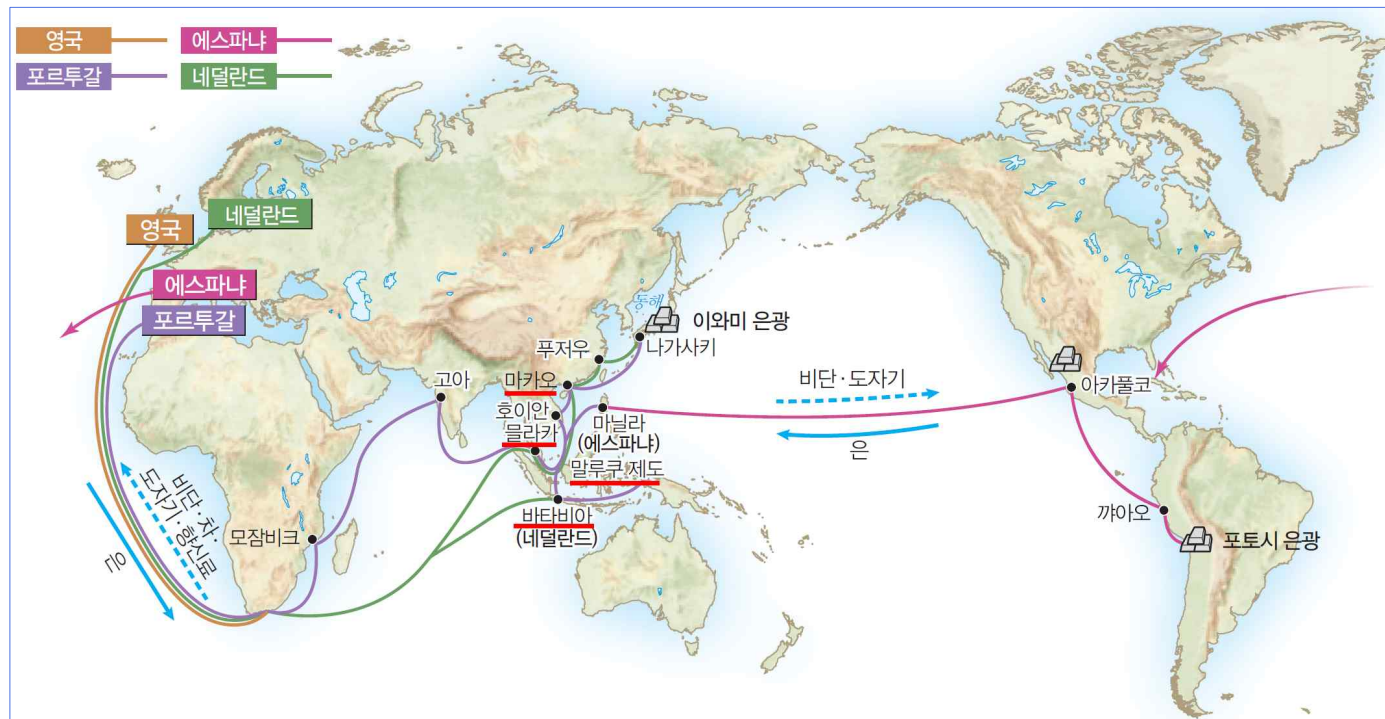


이것은 아시카가 다카우지와 고다이교 천황이 대립하면서 나타난 전대미문의 사태를 개탄하는 글입니다. 이런 상황은 50여 년간 지속되다가 3대 쇼군 시기에 이르러서야 종식되었습니다.

- ① 몽골에 포로로 잡힌 명의 황제
- ② 초량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 상인
- ③ 감합 무역을 감독하는 막부 관리
- ④ 주변 국가의 연안을 노략질하는 왜구
- ⑤ 몽골군과 교전하는 가마쿠라 막부의 무사

▶ 유럽 상인의 아시아 진출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블라카 점령(1511)</b> → 일본 최초 도착(1543) → 명으로부터 <b>마카오 조차(1557)</b> → 마카오를 근거지로 <b>일본과 명 사이에서 중계 무역 전개</b></li> <li>• 나가사키 개항(1570) → 포르투갈 상선의 최초 입항(1571) → 나가사키 데지마 상관 건설(1636) → 포르투갈 상인의 내항 금지(1639)</li> <li>• 일본에 조총과 화약, 명의 생사와 비단을 팔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은으로 명의 비단과 도자기 등을 사서 유럽으로 수출</li> </ul>
에스파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루손 섬의 마닐라 진출(1571) → <b>갈레온(galleon) 무역 전개</b> → 인트라무로스(Intramuros) 완성(1606)</li> <li>• 멕시코의 아카풀코 항에서 가져온 은으로 중국의 비단, 도자기, 면직물 등을 사서 유럽에 판매</li> </ul>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인도회사(1602), 말루쿠 제도 진출하여 포르투갈로부터 지배권 약탈(1599), <b>바타비아(자야카르타)에 교역 거점(1619)</b>, 블라카 확보(1641)</li> <li>• <b>타이완에 식민지 건설(1624 ~ 1662)</b> → 쌀과 설탕 등을 생산하여 판매</li> <li>• 일본 도래(1600), 히라도 상관 설치(1609) → 나가사키 데지마 상관 이주(1641)</li> </ul>



## ① 청의 공행 무역과 영국의 진출(『금성 교과서』, p.103)

청은 1684년(강희 23) 천계령을 해제하여 상인의 국외 진출을 허용하는 한편, 유럽 상인에게는 광저우(1757년 개항)에 설치된 공행(公行)을 통해서만 교역하도록(공행 무역, 1760) 하였다. 영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늦은 17세기에 동아시아 교역망에 동참(동인도회사 설립, 1600)하였지만, 18세기 중엽에는 동아시아 무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청으로부터 면직물과 비단, 차(茶) 등을 사들이고, 은(銀)과 인도산 목화를 수출하였다. 차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영국이 청에 지출하는 은의 규모도 커졌다. 이에 영국은 18세기 말부터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청에 팔았다(삼각 무역). 그에 따라 청의 은이 대 규모로 유출되었다.

## ② 1793년 건륭제가 영국 왕에게 보낸 서신(『금성 교과서』, p.110)

청의 건륭제(⑥, 재위 1735 ~ 1795)는 영국 조지 3세의 사절인 매카트니(1737 ~ 1806)에게 …… “영국인만 광저우에서 무역하는 것은 아니다. …… 우리 제국의 생산물은 다양하고 풍부하여 다른 나라의 상품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 특히 중국은 차, 도자기, 비단, 그리고 다른 재료들이 풍부하다. 이런 물건들은 너희 나라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수요가 많다. 너희에게 관용을 베푸는 차원에서, 짐은 다양한 상품을 저장할 수 있는 공적인 창고를 광저우에 개설하도록 지시하였다.”

- 윌리엄 T. 로, 『하버드 중국사 청 : 중국 최후의 제국』

## 개념 Check

- ① 포르투갈은 명으로부터 ( ) 거주권을 획득하여 무역의 근거지로 삼았다.
- ② 에스파냐는 대형 선박을 이용하여 아메리카산 은과 필리핀에 집결된 중국 상품을 교환하는 태평양 무역인 ( ) 무역을 주도하였다.
- ③ 에도 막부는 선교 문제를 이유로 1641년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나가사키의 ( )에서 무역을 허용하였다.
- ④ 청은 1760년 유럽 상인들이 광저우에서 무역을 하도록 하였으며, 거래 또한 ( )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하였다.
- ⑤ 네덜란드는 말루쿠 제도로 진출하여 지배권을 행사하였고 ( )를 교역 거점으로 삼았으며 17세기 중엽 동남아시아 섬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 밑줄 친 ㉠, ㉡ 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귀국이 크리스티교 포교를 금지한 데 이어 쇄국령을 내려 교역을 제한했음에도, 지금까지 200여 년간 ㉡본국과의 교역은 허락해 주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래 영국이 중국에 군대를 보내 전쟁을 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상선을 통해서 이미 알려 드렸습니다. …… 증기선이 만들어진 이래 서로 멀었던 나라들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혼자서 문 닫고 세계와 교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① ㉠ - 초량 왜관을 통해 인삼을 수출하였다.
- ② ㉠ - 시박사를 두어 해상 무역을 관장하였다.
- ③ ㉡ - 바타비아를 교역 거점으로 삼았다.
- ④ ㉡ - 마닐라를 건설하고 갈레온 무역을 전개하였다.
- ⑤ ㉡ -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를 ㉠에 파견하였다.



▶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가)	(나)	(다)	(라)	(마)
삼포 왜란 발생	센고쿠 시대 통일	정유재란 발발	에도 막부 수립	후금 건국	병자호란 발발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 명·청의 은 본위 경제 체제 확립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국 초 <b>보초</b>(寶鈔, 지폐, 1375 ~ )와 동전 유통 시도 : 보초에 대한 불신으로 <b>민간 거래에서 은의 유통 확산</b>,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은의 사용 증가, <b>은의 유입 증가</b>[금 : 은 = 중국(1 : 6), 유럽(1 : 12)]</li> <li>• <b>일조편법의 전국 시행</b>(장거정의 개혁, 1573 → 1581) : 상품 경제의 발달과 은 경제의 진전으로 세금의 항목과 종류 증가 : 조세와 요역 항목 통합 → 토지 면적과 장정 수에 따라 은으로 징수</li> </ul>	<p>▶ <b>마제은</b> (말굽은)</p>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정은제 실시</b>(1712 → 1730) : 요역 항목의 인두세인 정세를 토지세인 지세에 포함시켜 은으로 징수 : 은의 수요 더욱 증가 → 서양의 규격화된 은화도 유입되어 유통</li> </ul>	 <p>◀ 17세기 에스파냐의 은화</p>

▶ 은 유통의 확대와 조선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 유통 부진, <b>금은 면공</b>(金銀 免貢) 사건(1429), 국가가 은광 개발 독점(국영 광산)</li> <li>• 김감불과 김검동 등이 <b>단천연은분리법 발명</b>(= 회취법, 1503) → 은 생산량 증가 → 비단 등 사치품의 수요 증가로 은 부족 현상 지속</li> <li>• 16세기 중엽 이후 일본의 은이 다량으로 유입 → <b>생사와 비단의 구입을 위해 명으로 유출</b></li> </ul>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진왜란 당시 명군의 참전으로 은 유통</li> <li>• 명이 왜란 이후 은 부족과 은 가격 상승에 시달리자, 은을 조공(朝貢) 품목으로 요구</li> <li>• <b>일본에 인삼과 중국의 비단 수출 → 은 유입 → 중국으로 유출</b></li> </ul>

▶ 일본과 이메리키 은의 유통

은의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와미 은광 개발</b>(1526) → 조선에서 회취법 도입[1533, cf) <b>유서종</b> 사건(1539)] → 은의 생산 증가와 명 유입</li> <li>• 16세기 말 전 세계 은 생산량의 1/3 가량 생산</li> </ul>
-------	--

## ① 서양 상인의 진출과 교역의 변화(『미래엔 교과서』, p.101)

• (문순득은)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필리핀 사람과 홍모(紅毛) 서양인 수만 호(戶)가 살고 있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서 집 위에도 집을 올리고 있다. 관청이 하나 있는데 주로 변방을 살피고 손님을 접대하며 상인에게 세금을 징수한다. …… 양저우 이후부터는 배가 갑문과 도크를 통과해서 가는데, 양안은 돌로 독을 쌓았고 독 밖의 논은 모두 수면보다 수십 자 아래에 있었다. 배들은 운하를 통해 가는데 모두 군사들이 끝었다.

- 정약전, 『표해시말』

• 에스파냐 사람이 필리핀 제도를 영유하고 나서부터는 훨씬 많은 중국인이 오게 되었습니다. 매년 적어도 여덟 척, 어떤 해에는 스무 척에서 서른 척이나 되는 중국 배가 내항하였고, 모두 면포와 비단 같은 옷감을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 Blair and Robertson

## ② 16세기 은의 유통(『천재 교과서』, p.106)

16세기 명에서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1대 6이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의 1대 12에 비해 은의 가치가 2배나 높았다. 만일 유럽 상인이 중국에서 거래할 일이 있으면,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싼 은을 구입하여 중국에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100%의 환차익을 누릴 수 있었다.

- 주경철, 『문명과 바다』

## ③ 명의 조세 제도와 은(『천재 교과서』, p.106)

오늘날 지폐는 통용되지 않고, 동전만이 겨우 작은 교역에만 사용될 뿐, **모든 조세 업무를 은 하나로만 하니 은이 부족하게 되었다.** …… 은이 부족해지는데도 부세는 옛날 그대로이고 교역도 변함이 없다. 허둥지둥 은을 구하고자 해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는가?

- 황종희(1610 ~ 1695), 『명이대방록』 재계편

## ④ 조선의 은 유통①(『금성 교과서』, p.107)

우리 동방에는 은광이 많아 고려 말에 명의 과도한 요구로 백성이 견디지 못하였다. **조선 초에 요구하여 명으로 보내는 공물(은자)을 면제받았으나 그것을 화폐로 쓸 수도 없으므로 왕께서 은 채굴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셨다.** …… 그 후 2백 년이 지나 **임진왜란에 이르러 명에서 은을 우리나라에 주고, 군량과 군공 포상도 모두 은을 썼다. 이로써 은화가 유행하였다.**

- 신희, 『상춘고』



⑤ 조선의 은 유통②(『비상 교과서』, p.103)

호조가 아퇴기를, “근래에 와서 술과 고기, 소금, 간장 등의 소소한 값들은 모두 은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라의 백성들이 오히려 그 덕으로 생계를 꾸려 간다고 합니다. 명군을 상대로 장사할 때 처음 시도하였는데, 오래 시행하고 나서는 습속이 되어 술을 팔고 쌀감 파는 사람들이 물건을 살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먼저 은이 있는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 『선조실록』

⑥ 에도 시대의 은광 개발(『비상 교과서』, p.103)

**케이초 12년(1607)** 4월 처음으로 다량의 은을 발견했을 때,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먼 곳까지도 이 소문은 널리 퍼졌다. 같은 해 8월과 9월에는 각지에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그중에는 주군을 잃은 무사도 있었다. 케이초 13년 봄에는 이들이 대여섯씩 무리를 지어 계곡과 인나이 촌락에 집을 짓기 시작했고 더는 빌릴 만한 장소가 없게 되었다.  
- 『일본서민생활사료집성』

⑦ 동아시아 일대의 은 유통(『천재 교과서』, p.107)



〈인삼대왕고은(1710 ~ )〉

Summary

유럽의 진출과 교역망의 확대 ~ 은 유통의 활성화

유럽 - 신향로 개척 이후 향신료, 중국의 차·비단·도자기 구입 증가

- 포르투갈 { 물라카(1511) → 마카오(1557) → 나가사키  
조총, 비단·생사(명) → 일본의 은과 교역  
일본 은으로 명의 비단, 도자기 구입
  - 에스파냐 { 마닐라 기지(갈레온 무역, 1571)  
멕시코 은 → 명 비단·도자기·면직물 교역
  - 네덜란드 : 바타비아, 타이완(1624), 나가사키(1641)
  - 영국 { 동인도회사, 18C 중엽 청과 무역(차 수입)  
무역 적자 → 18C말 인도산 아편 판매  
(청의 은이 유럽으로 유출)
- cf) 유럽 → 아메리카 고추·감자·고구마·담배 전래

**명 ~ 청**  
 ↳ ① 은 경제권 : 은 가치가 유럽보다 2배 높음  
 ② 명 초기, 은 사용 금지, 지폐 보조·동전 장려  
 but 민간에서 은 유통 활발  
 ③ 조세 제도 [일조편법(1573), 지정은제(1712)]

**조선** : 명의 금, 은 요구 → 조공 품목에서 금, 은 제외

- ① 쌀·면포 등을 화폐로 사용
- ② 면포 수출로 일본의 은 유입 증가
- ③ 일본 ~ 조선 ~ 명 : 은을 이용한 중계무역
- ④ 단천연은분리법(김감불, 1503)
- ⑤ 임진왜란 당시 명군 참전으로 은 유통
- ⑥ 청과 무역 활성화 → 은광 개발, 일본 은 사용
- ⑦ 상평통보(1633·1649·1678) 유통 확산  
대외 무역, 고액 거래에는 은 사용

**일본**

- ① 15C 초 동전 유통 → 16C 은 유통 증가  
17C 에도 막부, 금·은·동전 → 화폐 사용
- ② 이와미 은광 개발(다이묘 참여, 1526)
- ③ 회취법 도입과 활용(1533 → 1539)
- ④ 16C말 세계 은 생산량의 1/3 차지
- ⑤ 16C 중반 일본 은 → 조선 → 랴오둥·베이징
- ⑥ 에도 시대 은 수출 금지(1688)

개념 Check

- ① 명에서는 고액권인 ( )에 대한 불신으로 은이 민간 거래에서 유통되었다.
- ② 청은 1712년부터 정세를 토지세에 합쳐 은으로 징수하는 ( )를 시행하였다.
- ③ 센고쿠 시대에 은 제련 기술인 ( )이 조선에서 전래되어 은 생산량이 급증하였다.
- ④ 16세기 중반에 일본의 은이 조선을 거쳐 랴오둥, ( )으로 유입되는 ‘은의 길’이 형성되었다.
- ⑤ 일본은 조선과의 교역에서 주로 ( )을 수출하였다.

[ ]

- ( ) 점령
- ( )에서 일본과 교역

에스파냐

- ( )를 거점으로 갈레온 무역 전개


[ ]

- 자와의 ( )에 기지 건설
- ( )세기 중엽 동남아시아 섬 대부분 장악

▶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의 발급 모양처럼 생긴 이것은 화폐의 일종으로 지세 등 각종 세금 징수에 폭넓게 활용되었어요.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이 화폐의 주재료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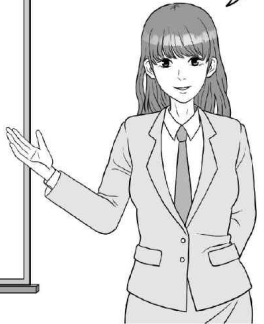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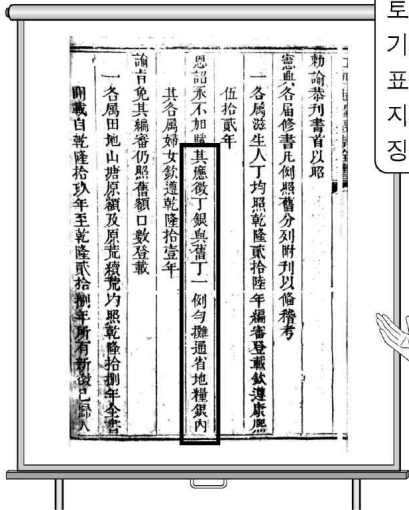


- 제작 시기: 광서 연간
- 제작 지역: 산시성 타이구현

- ① 명이 조선에 공물로 요구하기도 하였어요.
- ② 갈레온 무역을 통해 명으로 대량 유입되었어요.
- ③ 청에서는 아편 대금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었어요.
- ④ 일본이 조선의 회취법을 도입하여 생산량을 확대시켰어요.
- ⑤ 조선을 통해 명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주요 상품이었어요.

▶ (가) 제도의 실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각 지역에서 거들 인두세인 정세와 토지세인 지세의 징수 기준과 총액을 기재한 『부역전서』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표시된 부분을 보면 '정세를 고정시켜 지세에 합산하여 거둔다.'라는 (가)의 징세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교초가 발행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 ② 천계령이 해제되어 은의 유입량이 증가하였다.
- ③ 인도산 아편을 매개로 삼각 무역이 이루어졌다.
- ④ 공물 납부 방식이 변화하면서 공인이 등장하였다.
- ⑤ 덴메이 연간의 기근으로 인구 성장이 정체되었다.

▶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동아시아 경제 상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당시 중국에서는 갑작스러운 은 유입의 격감으로 전례 없는 재정 문제가 발생하였다. 에도 막부는 마카오의 포르투갈 상인들을 나가사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양국의 교역이 중단되었다. 게다가 곧이어 마닐라에서 중국 상인과 에스파냐 간에 유혈 사태가 벌어져 양국의 교역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조세를 은으로 징수하던 중국에서는 급격한 디플레이션과 은·곡물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고,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이는 결국 왕조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보기>

- ㄱ. 중국 - 은과 교환할 수 있는 지폐인 교초가 발행되었다.
- ㄴ. 조선 - 일본에서 유입된 은이 대외 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 ㄷ. 일본 - 이와미 광산을 개발하여 은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 ㄹ. 일본 - 조선에서 들여온 회취법을 이용하여 은을 생산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명·청대 서양 문물의 수용과 갈등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양 선교사</b>를 통한 서양의 자연 과학 지식 유입 : 예수회(1534 ~ ) 선교사들이 포교를 위해 과학 지식과 총포 제작술 등 소개</li> </ul>	
명	마테오리치(1552 ~ 1610) ↳ 이탈리아 선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카오 입국(1582) ⇨ 광동성(1583) ⇨ 베이징(1601), 신종 만력제에게 자명종(自鳴鐘) 헌상</li> <li>• 『<b>곤여만국전도</b>』 제작(1602) → 중국인의 세계관 변화에 영향</li> <li>• 크리스티교의 교리 문답서인 『천주실의』간행(1603), 서광계(1562 ~ 1633)와 함께 『기하원본』 번역·간행</li> </ul>
청	아담 샬(1591 ~ 1666) 카스틸리오네(1688 ~ 17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예수회 신부, 중국 입국(1622), 흠천감감정으로 역법 개정 주도 → 『<b>시헌력</b>』 제작(1645)</li> <li>• 화가이자 이탈리아 예수회 신부, 중국 입국(1715), 원명원(圓明園, 1725) 설계에 영향</li> </ul>
전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톨릭교회의 포교 허가(1692), <b>전례(典禮) 문제 발생</b>(1704)</li> <li>• 응정제(ᄃᆞ, 재위 1722 ~ 1735) → 크리스티교 선교 금지와 선교사 추방(1724)</li> </ul>	

▶ 조선의 서양 문물 수용

서양인	벨테브레이(1595 ~ ?)  하멜(1630 ~ 16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덜란드인, 1627년(인조 5)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 제주도에 표착, 귀화(박연), 무과 급제</li> <li>• 훈련도감에서 근무하며 무기 제조 담당, <b>병자호란</b> 참전, 명에서 수입한 흥이포의 제작법과 사용법 지도</li> <li>• 네덜란드인, 1653년(효종 4) 제주도 표착, 14년 간 조선에 억류</li> <li>• 1666년 나가사키로 탈출, 『하멜 표류기』 저술</li> </ul>
실학자	홍대용(1731 ~ 1783) 정약용(1762 ~ 18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학과, 지구의 자전설 주장(『의산문답』)</li> <li>• 중농학과, 『기기도설』(테렌즈, 1627)을 참고하여 거중기 설계</li> </ul>

▶ 일본의 서양 문물 수용

크리스티교	• 센고쿠 시대 프란시스코 하비에르(1506 ~ 1552)의 포교(1549) ⇨ <b>에도 막부의 크리스티교 금지령 반포(1612)</b>	
서양인	윌리엄 애덤스(1564 ~ 1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출신 항해사, 일본 표착, 귀화(미우라 안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외교 고문</li> <li>• 기하학·수학·항해술 등 서양 지식 전수, 영국식 선박 건조, 유럽인 최초의 사무라이</li> </ul>

① 서양 선교사의 활동(『미래엔 교과서』, p.104)

- 중국 지식인 : 천주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을 변화·발전시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 서양 선교사 : 집은 스스로 세워질 수 없고 언제나 목수들이 완성합니다. 천지는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천주가 반드시 계심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 마테오리치, 『천주실의』

② 교역망의 확대와 서양과의 교류(『천재 교과서』, p.103)

유럽인의 동아시아 진출로 동아시아 교역망이 세계로 연결되었다. 유럽과 명·청, 일본의 상인들은 플라카, 마닐라, 나가사키 등지에서 활발하게 교역하였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명·청의 생사와 비단, 차, 도자기, 일본의 도자기와 은, 인도의 목화와 면포, 아메리카의 은 등이 전 세계에 유통되었다. 또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이 동남아시아 등지를 거쳐 동아시아에 전해졌다. 한편, 명·청과 일본산 도자기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유럽에서는 도자기 복제 기술이 발달하였다.



〈서양풍의 중국 도자기(17세기)〉

개념 Check

- ① ( )는 서광계와 함께 『기하원본』을 간행하여 유클리드 이론을 중국에 소개하였다.
- ② ( )는 에도 막부의 외교 고문으로 일본과 네덜란드, 영국 간의 통상에 기여하였다.
- ③ 1627년 제주도에 표착한 네덜란드인 ( )는 조선의 화포 제작에 참여하였다.

▶ 밑줄 친 ㉠이 있었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선교사 ○○○○○의 약 28년간 ㉠ 주요 활동 >



- ① 오년의 난에 가담하는 무사
- ② 소금을 판매하는 휘저우 상인
- ③ 삼포 왜란을 진압하는 조선 군인
- ④ 단천의 회취법 발명을 보고하는 관리
- ⑤ 지정은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농민

▶ 명·청대의 인구 증기

양상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기술의 발달, 경지 면적의 증가, 농서의 보급 등에 힘입어 농업 생산력이 꾸준히 향상</li> <li>• 옥수수, 감자, 고구마, 땅콩 등의 구황작물(救荒作物)의 재배로 식량 증대에 도움</li> <li>• 면화, 뽕나무, 담배 등 수공업 원료나 상품 작물의 재배 증가</li> </ul>	<table border="1"> <caption>중국 인구의 변화 (억 명)</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인구 (억 명)</th> </tr> </thead> <tbody> <tr> <td>1600</td> <td>1.4</td> </tr> <tr> <td>1650</td> <td>1.3</td> </tr> <tr> <td>1750</td> <td>2.15</td> </tr> <tr> <td>1850</td> <td>4.3</td> </tr> </tbody> </table>	연도	인구 (억 명)	1600	1.4	1650	1.3	1750	2.15	1850	4.3
	연도	인구 (억 명)											
	1600	1.4											
1650	1.3												
1750	2.15												
1850	4.3												
교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30년대부터 1640년대까지 <b>인구 감소</b> : 농민 반란과 정복 전쟁, 화북 지방에 발생한 전염병</li> </ul>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늪지대와 숲, 들 등을 개발하여 농경지로 개간</li> <li>• 제방과 수리 시설 개선 ↳ 명 대 초기보다 경지가 세 배 정도 증가</li> <li>• 의료 기술의 향상으로 사망률 감소</li> <li>• <b>지정은제의 전국 실시(1730)</b></li> <li>• 오랜 평화와 18세기의 온난한 기후 등의 영향 ↳ 폭발적인 인구 증가</li> </ul>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수준이 떨어지고 환경 파괴</li> <li>• 물가 상승</li> <li>• 실업자, 유민이 전국에 걸쳐 증가 → 비밀 결사와 농민 반란이 빈번하게 발생</li> <li>• 산간이나 변경 지대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나 현지인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 심화</li> <li>•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동남 해안 지역에서의 계투(土客械鬪) 만연</li> <li>•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증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푸젠 토루(福建土楼)〉</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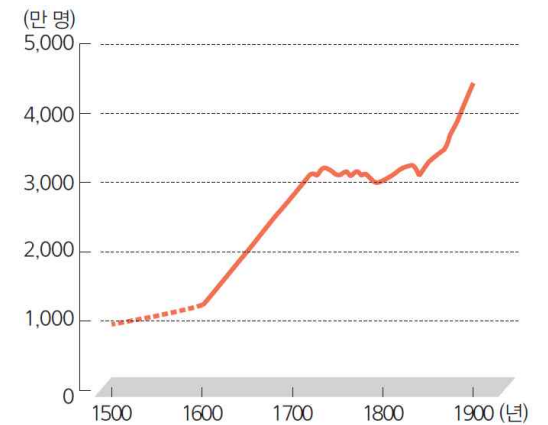
▶조선 후기의 인구 변화

- 정부의 개혁 정책
  - : 전세(田稅) 경감, 진전(陳田)의 개간, 양전(量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 숙종(19, 재위 1674 ~ 1720) 때 경지 면적이 전쟁 전의 상태로 거의 회복
- 농업 기술의 발전과 농업 생산력 향상, 구황 작물의 재배
  - : **모내기법과 시비법**이 전국적으로 확산, **고구마 전래(조염, 대마도, 1764)** · 감자 전래(간도, 1824)
- 장시(場市)의 발달로 상품의 유통 활성화
  - : 면화, 담배, 채소 등 상품 작물 재배 증가
- 인구 변화
  - : 500만 명(건국 초기) ⇨ 1,000만 명(16세기 중반) ⇨ 인구 감소(17세기 전후) ⇨ 1,600만 명(19세기 중엽)
  - : 많은 사람이 삼북(황해도 · 평안도 · 함경도) 지방으로 유입 → 지역 개발 촉진
  - **1670 ~ 1671년**(경술년 ~ 신해년, 현종 11 ~ 12) **경신대기근**



▶에도 시대 일본의 인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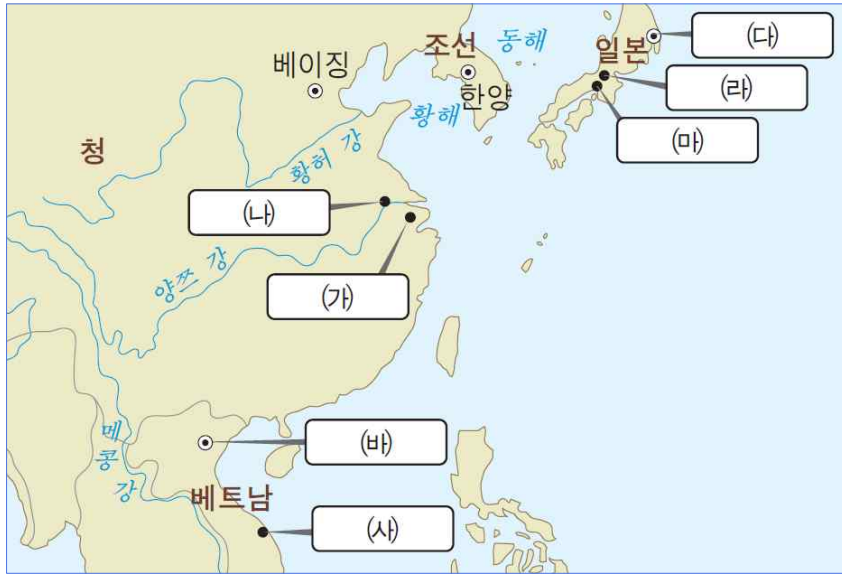
- 개간과 간척 등을 통해 새로운 농경지를 확보하려는 노력
  - : 산비탈에까지 밭과 계단식 논 조성
- 각지의 다이묘들도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농민의 토지 개간을 적극적으로 장려
  - : 경지 면적이 두 배 이상 증가
- 농업 생산량의 증가
  - : 농기구 개량, 비료 사용 증가, 노동 집약적 농업 발전 →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
- 면화, 담배 등 상품 작물 재배
- 인구 변화
  - : 약 1,500만 명(17세기 초) ⇨ 2,500만 명(18세기 초) ⇨ 인구 정체[다이묘의 수탈 증가, 교호 대기근 (1732 ~ 1733), **덴메이 대기근**(기후 변동과 화산 폭발, **1782 ~ 1788**), 18세기]
  - 오사카 쌀 폭동(1788)



<p>명·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도 베이징</b> : 정치·군사의 중심지, 인구 100만 명, 최대 소비 도시, 강남에서 매년 400만 석 이상의 쌀이 대운하를 통해 운송</li> <li>• <b>쑤저우</b> : 직물업 중심지, 최대 수공업 도시이자 상업 도시로 발전, 『성세자생도(고소변화도)』(자생 → 인구가 늘어난다. 1759)</li> <li>• <b>양저우</b> : <b>전매 상품인 소금 판매를 도맡아 큰 부를 축적한 휘저우 상인**들의 근거지</b></li> <li>• 상업의 발달 : 면화와 면직물, 생사와 견직물, 목재, 콩 등이 전국적으로 유통, 차(茶)와 <b>도자기(징더전)</b>의 수출로 경제적 번영</li> <li>• 대운하와 창장 강, 연안 항로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li> <li>• <b>산시 상인, 휘저우 상인</b>( ‘휘저우 상인이 없으면 도시가 생기지 않는다.’ ) 등이 전국을 무대로 활동 → 회관(會館, 동향인 조합) 설립</li> <li>• 중소 상공업 도시인 <b>시진(市眞)</b> 증가 : 거미줄처럼 연결된 수로를 통해 포도송이와 같은 유통망을 형성하며 <b>강남 전체를 도시화</b></li> </ul>
<p>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도 한양</b>의 도시화 촉진 : 정치·행정·군사의 중심이자 상업 도시, 인구의 유입 증가, 수상 교통의 중심지인 성(城) 밖의 마포 등 한강 변에 인구 집중(성저십리)</li> <li>• 15세기 후반 <b>장시(場市)</b> 출현 ⇨ 16세기 장시의 전국 확산 ⇨ 17세기 이후에는 <b>포구(浦口) 시장</b>과 도시 시장 등장 ↳ 18세기 전국에 1,000여 곳의 장시 성행, 상품 거래와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상업 발전 주도</li> <li>• <b>대동법의 시행(1608 ~ )</b>으로 공인(貢人)이 등장하여 상업 발달 촉진</li> <li>• <b>한양의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동래의 내상, 의주의 만상 등 사상의 활약</b> : 경강상인은 한강을 근거로 서해와 남해까지 진출하여 미곡, 소금, 목재, 어물 등을 거래 : 송상, 내상, 만상 등은 대외 무역을 통해 큰 부를 축적</li> </ul>
<p>에도 막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병농분리</b>와 무사의 지배, 엄격한 신분 제도의 원칙 확립 : 각 번(藩)의 거점인 <b>조카마치</b>에 지배층인 사무라이가 거주하면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li> <li>• 막부가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b>산킨코타이 제도(1635 ~ )</b>의 영향으로, <b>전국적인 도로망이 정비</b>되고 여관업과 상업이 발달</li> <li>• <b>조카마치 발전</b> : 18세기에는 전체의 약 10%에 달하는 주민이 도시 거주 : <b>막부 직할령인 에도, 오사카(천하의 부엌)</b>, 교토 등은 인구 수십만의 대도시로 발전 → 삼도(三都) : 나고야, 나가사키, 히로시마 등에도 수만 명의 인구가 거주</li> <li>• <b>조년의 성장</b> : 초기의 호상(豪商, 독점 어용상인)을 대신하여 출현한 신흥 상인들은 나카마라는 동업인 조합을 결성하여 영업권의 독점 모색 : 막부와 다이묘로부터 영업의 독점권을 인정받은 나카마는 <b>가부나카마</b>로 공인(1745)</li> </ul>

Check!

도시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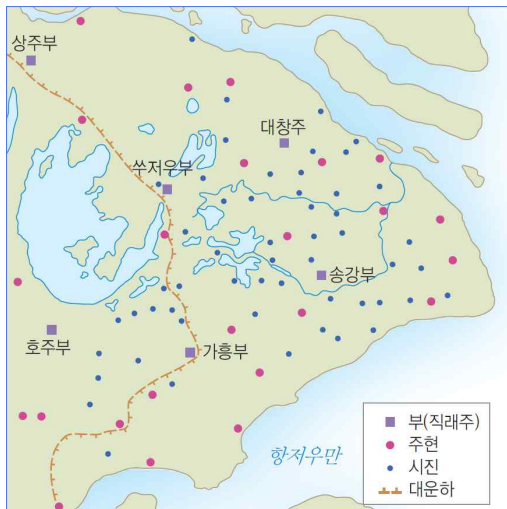


- (가) - 양저우(\_\_\_\_\_ 상인의 근거지)
- (나) - 쑤저우(『\_\_\_\_\_』, 1759)
- (다) - 에도(→ 도쿄, 1868)
- (라) - 교토(일본의 수도, 794 ~ 1868)
- (마) - 오사카(천하의 부엌)
- (바) - 탕롱(하노이)
- (사) - 호이안(에스파냐, 포르투갈 상인의 진출)



Check!

강남 시진의 발달



사명감 충만!!

① 한양 인구 구성의 다양화(『천재 교과서』, p.114)

한양 주민 중에서 관직에 있는 자는 봉록(俸祿)을 받아 살며, 서리는 자질구레한 늬(늬으로 받은 쌀)으로 살고, 군인들은 군포(軍布)를 받아 살고, 영세 소상인들은 조그만 이익에 의지해 살고, 수공업자는 힘들게 제조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농사도 짓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고 먹고사는 무리가 무려 수십만이나 된다. 공인, 시전 상인은 한양 주민 중에서 가장 생활이 안정된 자들이다.

- 『비변사등록』

② 일본의 도시 성장(『천재 · 비상 교과서』, p.115 · 119)

긴 다리 일곱 개를 지나서 비로소 오사카에 당도하니, 곧 모든 배가 정박하는 곳이었다. …… 길 양쪽의 긴 건물 중 층층의 집이 아닌 것이 없었으니, 이것은 온갖 물건을 파는 점포였다. …… 에도 길옆에 있는 회랑은 모두 상점이었다. …… 여러 사람의 눈이 뻑뻑하여 한 치의 빈틈도 없고, 옷자락에는 꽃이 넘치고 주렴 장막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오사카와 교토보다 세 배는 더하였다.

- 신유한(1681 ~ 1752), 『해유록(海遊錄)』

③ 도시의 성장(『비상 교과서』, p.112)

▣ 명

명 말의 사조제(謝肇淛)는 “북경의 창고는 양가의 규수보다 많고, 걸개(거지)는 상인보다 많다.” 고 했고, “경사(수도 부근)에는 걸개가 많아서 아마 만 명은 넘을 것” 이라고 했다.

- 오금성 외, 『명 · 청 시대 사회경제사』(2013)

▣ 조선

공주는 …… 금강을 따라 흘러온 소규모 미곡 운반선이 이곳에서 큰 배로 옮겨 싣기 때문에, 품삯이 비싸고 일거리도 많으므로 빈민들은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간다. …… 사방의 장사꾼들이 모여든다.

- 이익, 『성호사설』

▣ 일본

(18세기) 에도에는 교토, 오사카에서 올라온 상품을 운송하기 위한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어 일용직 고용층이 등장하였다. ……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하층민이 형성되었다.

- 아사오 나오히로 외, 『새로 쓴 일본사』(2007)

## 개념 Check

- ① 명·청 시대 상업의 발전으로 대운하와 창장 강, 연안 항로가 경제의 대동맥이 되었으며, ( ) 상인과 신안(휘저우) 상인 등이 전국에 걸쳐 활약하였다.
- ② ( ) 대기근은 1782년부터 1788년에 걸쳐 일어난 대기근으로, 기후 변동과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일어났다.
- ③ 직물업의 중심지인 강남의 ( )는 최대의 수공업 도시이자 상업 도시로 발전하였고, 양저우는 전매 상품인 ( ) 판매를 독점해 부를 축적한 상인들의 근거지가 되었다.
- ④ 17세기 조선에서는 장시보다 규모가 큰 ( ) 시장과 도시 시장이 등장하였다.
- 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상인으로 한양의 경강상인, 개성의 ( ), 동래의 내상, 의주의 ( ) 등을 들 수 있다.
- ⑥ 에도 막부 시대 각 번의 거점인 ( )에 지배층인 사무라이가 거주하면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 ⑦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하여 에도 막부가 시행한 ( ) 제도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도로망이 정비되고 여관업과 상업이 발달하였다.
- ⑧ 에도 막부 초기 호상을 대신하여 출현한 신흥 상인들은 영업상의 각종 권리(가부)를 지키기 위한 ( )를 결성하였다.

### ▶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동아시아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쑤저우의 번창한 모습을 그린 『성세자생도(고소변화도)』의 일부로 운하를 오가며 쌀, 비단, 담배 등을 매매하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시기에 쑤저우를 비롯한 강남 지역에는 시진(市眞)이 크게 늘어났고, 산시 상인과 휘저우 상인들은 회관(會館)을 건립하고 전국적으로 상권을 확대하였다.

- ① 중국 - 균전제가 실시되었다.
- ② 중국 - 왕안석이 신법을 시행하였다.
- ③ 한국 - 청해진이 동아시아 무역의 거점이 되었다.
- ④ 일본 -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였다.
- ⑤ 일본 - 유력 농민층인 묘슈가 등장하여 장원을 관리하였다.

▶ 명·청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성장으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소비문화 발전 → 도시 생활을 소재로 한 유흥과 오락을 즐기는 통속적인 취향이 반영</li> <li>• 부유한 상인들이 문화의 주류로 등장</li> <li>• : 청 대 고증학 후원, 출판문화와 지역별 음식 문화도 상인을 중심으로 발전</li> <li>• 인쇄술의 발전으로 소설, 희곡, 시험용 도서 등 다양한 서적이 보급되면서 문화 수준 향상</li> <li>• 농업이나 과학·의학·지리 등 실용 지식의 전파</li> </ul>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교 사원이나 도교 사원 등 종교 시설에서 벌어지는 행사나 축제</li> <li>• 곡예·잡기·마술을 공연하는 대규모 공연장에서 여가 활동</li> <li>• 종합 예술인 연극은 농촌을 순회하며 공연할 정도로 대중적 인기</li> <li>• : <b>경극(京劇, 베이징)</b>, 각지의 특색을 반영한 지방 연극이 크게 발전</li> <li>• 『서유기』, 『삼국지연의』, 『수호전』, 『홍루몽』(1791년 출판) 등 <b>대중 소설</b>이 서민 사이에서 유행</li> <li>• 도시 생활이나 민간 풍속을 묘사한 그림, 정월에 집안에 붙여 두는 <b>연화(年畵)</b> 등이 인기</li> </ul>

▶ 조선 후기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당을 통한 교육 보급</li> <li>• 사회·경제적 변화와 신분 구조의 변동, 실학 등의 영향으로 서민층의 자각에 바탕을 둔 문화 발달</li> </ul>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길동전』, 『춘향전』 등 <b>한글로 쓰인 대중 소설</b> 유행</li> <li>• 『춘향가』, 『흥부가』, 『심청가』 등 <b>판소리</b> 발달</li> <li>• <b>탈춤, 산대놀이</b> → 춤과 노래, 사설로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여 서민들 사이에서 인기</li> <li>• 종이나 부녀자, 기생, 상인 등이 즐겨 부른 <b>사설시조</b>의 발달</li> <li>• 미술에서는 서민의 일상생활과 의식을 묘사한 <b>풍속화, 민화(문자도·호작도)</b> 등이 성행</li> <li>• : 풍속화가로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의 장면을 묘사한 김홍도, 도시민과 부녀자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신윤복 등이 유명</li> </ul>

▶ 에도 막부의 조닌 문화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생활이 자유로웠던 <u>조닌이 도시의 중산층으로 등장하여 특유의 문화 발전</u> ↳ 여가를 활용하여 문학과 연극, 그림 등의 예술 향유 → 점차 다른 사회 계층에까지 확산</li> <li>• <u>읽기, 쓰기, 셈법 등을 가르치는 데라코야(寺子屋) 확산(1690년대)</u></li> </ul>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에서는 남녀의 애정이 주요 소재로 이용, 주로 상인이 주인공으로 등장, ex) 『일본영대장』(이하라 사이카쿠)</li> <li>• <u>분라쿠</u>(전통적인 인형극), <u>가부키</u>(노래와 춤·재주를 결합한 대중 연극) 유행 : 가부키 전용 극장이 생기고 나중에는 지방의 마을에서도 공연</li> <li>• <u>우키요에</u>[게이샤(藝者)나 배우, 풍속·풍경 등을 묘사한 채색 목판화, 가쓰시카 호쿠사이, 1681 ~ ] 발달 → <u>유럽 인상파 화가에 영향</u></li> <li>• 꽃꽂이, 정원 장식, 다도 등 일본 고유의 예술도 발전</li> </ul>



<경극>



<탈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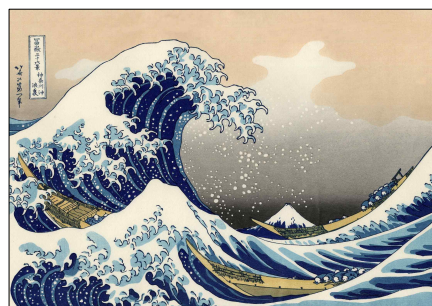
<풍속화>



<분라쿠>



<가부키>



<우키요에>

▶ 명 · 청대의 학문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학인 성리학(주자학)과 공론화된 양명학에 반발하여 농학, 지리학, 역법 등의 연구를 통해 <u>경제치용을 추구하는 학문 경향</u> 등장 : 『본초강목』(이시진, 의학, 1596), 『<u>천공개물</u>』(송응성, 산업 기술, 1637), 『<u>농정전서</u>』(서광계, 농학, 1639), 『기하원본』 번역(서광계)</li> </ul>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고증학</u>(考證學) : 명말 청초 황종희(1610 ~ 1695), 고염무(1613 ~ 1673) 등이 선구적 역할 → <u>문헌에 근거한 실증적인 사실 규명</u> 중시 : 청(淸)의 사상 탄압(문자의 옥)과 한인 지식층 회유를 위한 대규모 편찬 사업 과정에서 발달 ↳ 『고금도서집성』(옹정제, 1725), 『<u>사고전서</u>』[경(經, 유교 경전)·사(史, 역사)·자(子, 사상)·집(集, 문학), 건륭제, 1773 ~ 1782(1781)]</li> <li>• <u>공양학</u>(公羊學) :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연구, Kang유웨이(1858 ~ 1927)·Yang치차오(1873 ~ 1929) : 진보 사관,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근거 제공 → <u>변법자강 운동(= 무술변법, 1898)의 이론적 토대</u></li> <li>• 서학 → 역(歷)을 만드는 흠천감(欽天監)의 장관에 선교사 임명</li> </ul>

지문 확인

새로운 학문의 발전(①)

① ㉠ \_\_\_\_\_, ㉡ \_\_\_\_\_ (『천재 · 금성 교과서』, p.120)

역사적 사건과 흔적들은 칭송할 것도 담고 있고 비난할 것도 담고 있다. (그러하니) 역사를 읽는 사람들도 ㉠역지로 문법(이론적 틀)을 세우거나 멋대로 더하거나 덜어서 찬양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사건과 흔적의 사실 여부를 상고함에 있어서 연도를 날줄로 삼고 사건을 씨줄로 삼아 분류하여 배치하거나 모아서 차례를 정하고, 기록의 같고 다름 및 보고 들은 것의 어긋남과 합치됨을 하나하나 조목별로 분석하여 의심을 없게 한다. …… 일반적으로 학문의 길은 공허(한 사변)에서 구하는 것이 사실에서 추구하는 것만 못하니, ……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이 사실을 기록하고 역사를 읽는 사람이 상고하고 따지는 목적은 모두 거기서 그저 진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 왕명성(1720 ~ 1797), 『십칠사상각』

② 청의 고증학(『천재 교과서』, p.123)

나는 어려서부터 사서(四書)의 주석을 읽고 그 내용을 믿었으며 …… 자라면서 그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이미 육경과 공자·맹자의 말을 깊이 읽고 이것들을 사서의 주석에 있는 말과 비교해, 주석이 말하는 심(心), 이(理), 성(性), 도(道)의 뜻이 육경 및 공자·맹자의 말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단옥재(1735 ~ 1815), 『경운루집』



▶ 조선 후기, 에도 막부의 학문

조선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학이 발달하고 전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예송 논쟁, 1659 · 1674)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인 송시열(1607 ~ 1689) 주도, 주자학(성리학)의 교조화되고 형식화</li> </ul> </li> <li>• 17세기에는 정제두(1649 ~ 1736)를 비롯한 소론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양명학을 연구하기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자학의 교조화 비판, 실천 강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li> </ul> </li> <li>• 연행사를 통해 서학(西學, 광의 · 협의)이 전해져 천문학과 역법, 기계 제작 등에 영향 → 양반과 중인층 일부가 천주교 신봉</li> <li>• 실학(實學)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 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의 해결책 모색</li> <li>: 토지 개혁 등을 통해 농촌 사회를 안정(중농)시키거나, 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상공업의 진흥에 역점을 둘 것(중상)을 주장</li> <li>: 이익(1681 ~ 1763) · 정약용(1762 ~ 1836), 박지원[『열하일기』(1780), 1737 ~ 1805] · 박제가(1750 ~ 1805)</li> </ul> </li> <li>• 실학의 영향으로 조선의 역사 · 지리 · 언어 분야 등을 연구하는 국학 발달, ex 『발해고』 · 『택리지』 · 『대동여지도』</li> </ul>
에도 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리학(주자학)의 관학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사 계급의 주종 관계 합리화 → 중국, 조선과 달리 사회를 지배하는 윤리로 정착하지는 못함.</li> </ul> </li> <li>• 양명학 → 불합리한 사회 현실과 제도를 개혁하자는 실천적 성격 표방, 막부 타도를 주장하는 무사들의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카에 도주(신분을 초월한 평등사상 주장, 1608 ~ 1648), 막부의 세습 비판(구마자와 반잔, 1619 ~ 1691)</li> </ul> </li> <li>• 고학과(古學派, 17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토 진사이(주자 비판, 1627 ~ 1705), 오규 소라이(중국 고대 성인의 도를 밝히고 육경을 강조, 1666 ~ 1728) 등</li> <li>: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공자 · 맹자 시대의 유학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li> </ul> </li> <li>• 국학과(國學派, 18세기 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토오리 노리나가(1730 ~ 1801)</li> <li>: 일본의 언어 · 문학 · 신학 등 고전 연구 주장(고유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 일왕에 대한 충성심 강조(『대일본사』, 1657 ~ 1906)</li> <li>: 『고사기』 연구와 『고사기전』 저술(1798), 일본 우월주의와 존왕양이 운동에 영향</li> </ul> </li> <li>• 난학(蘭學, 랑가쿠)의 발달[데키주쿠(난학 교습소, 1838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덜란드 상인에게 개방한 나가사키를 통해 서양의 의학 · 지리학 · 천문학 · 언어학 등이 들어와 새로운 지식 축적</li> <li>: 마에노 료타쿠(1723 ~ 1803) · 스키타 겐파쿠(1733 ~ 1817), 『가이타이신쇼(해체신서)』 집필(1774) → 경험적 · 실증적 학문 방법론 발전</li> </ul> </li> </ul>

## ① 군주 제도 비판(『미래엔 교과서』, p.119)

옛날에는 천하 사람이 주인이고 군주는 객(客)이었다. 군주가 일생 동안 경영한 것은 천하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군주가 주인이고 천하가 객이 되었다. 무릇 천하가 안녕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군주 때문이다. …… 만약 군주가 없다면 사람들이 각자의 이로움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 황중희(1610 ~ 1695), 『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

## ② 에도 막부의 고학(『비상 교과서』, p.118)

유학의 흐름이 …… 이상한 행동을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하게 되었다. 성인(聖人)이란 천자(天子)이며, 천자는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일을 자신의 직분으로 한다. 따라서 성인의 도란 바로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도라는 본래의 뜻을 어느 틈엔가 잊어버렸다.

- 오규 소라이(1666 ~ 1728), 『태평책(太平策)』

## ③ 에도 막부의 국학(『금성 교과서』, p.120)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일본의 태양신)는 우주 사이에서 견줄 바 없는 존재로서, 크리스티교의 하나님이나 유교의 천명(天命)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 아마테라스가 태어난 일본은 만국의 중심이 되는 나라이고, 그 후손인 천황의 대군주로서의 지위는 불변하다.

- 모토오리 노리나가(1730 ~ 1801), 『고사기전(古事記傳)』

## ④ 정약용의 군주론(『미래엔 교과서』, p.119)

백성이 살면서 한 사람이 이웃과 다투어 해결을 보지 못하자 공정한 말을 잘하는 한 노인을 찾아가서 해결을 보았다. 사방의 이웃들이 다 감복하여 그 노인을 추대하여 이정(里正)으로 삼았다. …… 이상과 같은 사정과 순서를 밟아서 …… 여러 고을의 우두머리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지방 장관을 정했고, 또 이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황왕(皇王)이라 하였으니 황왕의 근본은 이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 ⑤ 조선의 중상학파 실학(『비상 교과서』, p.117)

재물은 우물과도 같아 퍼서 쓸수록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비단을 입지 않아서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으면 길쌈질이 쇠퇴하고, 그릇이 비뚤어지든 어떻든 개의치 않으면 나라에 공장(工場)과 도야(질그릇 굽는 곳)와 대장간(鐵匠)이 없어지고, 기예도 없어지는 것이다.

- 박제가(1750 ~ 1805), 『북학의(北學議)』

Summary

사회 변동과 서민 문화

• 명·청 대

인구 증가

- 토지 개간 → 청, 쓰촨 지방과 창장강 상류(쌀)
- 생산력 발전, 사망률 감소
- 신작물의 유입(옥수수, 감자, 고구마)
- 명말청초 약 1억 4천만 명에서 18세기 말 3억
- 부작용 : 1인당 경지면적 축소
- 실업자, 유민 증가로 농민반란
- 인구 이동과 계투(械鬪), 환경 파괴, 물가 상승

도시 발달

- 전국적 유통, 창장강과 대운하, 대상인(산시 - 휘저우 상인)
- 베이징(영락제, 1421), \*영락제 → 대운하 정비
- 쑤저우(견직, <성세자생도>), 양저우(소금 전매 상인의 근거지)
- 시진(상공업 도시) 증가

서민 문화

- 출판(인쇄술 발달) : 실용 지식 서적(과학, 의학 등)
- : 서유기·삼국지연의·수호지, **홍루몽**
- 공연 문화 : 곡예, 잡기, 마술 공연
- : 희곡 농촌까지 순회 공연 → **경극(베이징)**
- 행사 : 불교 사원·도교 사원 등 종교 행사, 명절 축제

• 조선

인구 증가

- 15 ~ 16C말 증가, 17C 중반 이후 ~ 19C초 증가
- (예외 : 임진·병자 전쟁, 17C 전후 200만 명 감소)
- 경신대기근(1671 ~ 1672)으로 100만 명 사망
- 17C 후반 이후 북부 개발 : **삼북(황해·평안·함경도)**

도시 발달

- 16C 이후 **장시** 발달 → 18C 전국적(1,000여 곳 : 보부상)
- 포구와 도시 시장** 번성
- 한양 : 수도, 대동법 확산, 화폐 유통 등으로 발전
- 서강, 마포 → 18C 이후 30만 명 인구 증가
- 강경·원산 등 포구 도시 성장, **개성(송상)과 의주(만상)**
- 화성(정조 대 계획 도시로 성장, 1796)

조선 후기 서민 문화(부농, 상공업자)

- 서당 교육 확대
- 한글 소설**(장화홍련전, 콩쥐팥쥐전)
- 판소리**(춘향가, 흥부가, 심청가 등)
- 풍속화**(김홍도, 신윤복 등), **민화**
- 탈춤** 공연[상업 도시, ex)봉산 탈춤]

• 일본 에도 막부

인구 증가

- 경지면적 확대 · 토지 조사(검지), 생산량 증대
- 17C초 ~ 18C초 2,500만 명
- 18C 중·후반 이후 인구 정체
- 다이묘(영주) 수탈 증가
- 자연 재해 : **텐메이 대기근(1782 ~ 1788)**

도시 발달

- 조카마치 : 번 거점, 무사 + 조닌(상공업자)
- 산킨고타이** : 다이묘 → 에도 쇼군 알현, 1635
- : **도로망, 상업 발달**
- 상업 도시 : **오사카와 교토**(막부 직할령), 나고야·나가사키·사카이
- 상인 : 다이묘 · 무사 상대 환전 및 대부 등 금융업, 동업 조합

서민 문화(조닌 문화)

- 통속적 문학(주인공 상인)
- 분라쿠**(인형극), **가부키**(대중 연극)
- 우키요에**(채색 목판화, 1681)
- 테라코야(서당), 데키주쿠(1838)

개념 Check

- ① 청대 ( )에서는 경극 공연이 유행하였다.
- ② ( )는 에도 막부 시대에 유행한 풍속화로, 주로 채색 판화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 ③ 조선 후기 서민 교육 기관으로 ( )이 많이 만들어졌다.
- ④ 청대에는 실증적 방법으로 경전이나 금석문을 연구하는 ( )이 유행하였다.
- ⑤ 에도 시대 나가사키를 통해 들어온 서양 학문을 바탕으로 ( )이 발달하였다.

▶ **밑줄 친 ‘막부’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학으로 보는 동아시아사**

팔도를 두루 유람하며 명산대천 다 본 후에  
 풍월과 함께 즐겁게 놀고 금강에서 지냈는데  
 서재에서 나와 세상 소식을 들으니  
 일본의 관백\*이 죽고 통신사를 청한다네.

\* 관백: 제9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시게를 가리킴

**해설**

위 작품은 통신사 일행으로 막부에 파견되었던 김인겸이 11개월 동안의 여정을 기록한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의 일부이다. 당시 통신사 일행은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하였으며, 그 재배법을 보급하였다.


- ① 한국 - 『홍길동전』을 읽고 있는 상인
- ② 중국 - <곤여만국전도>를 보고 있는 신사
- ③ 중국 - 『사서집주』를 편찬하고 있는 지식인
- ④ 일본 - 우키요에를 구매하는 조닌
- ⑤ 일본 - 가부키 공연을 준비하는 배우

▶ **(기) 국가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OST C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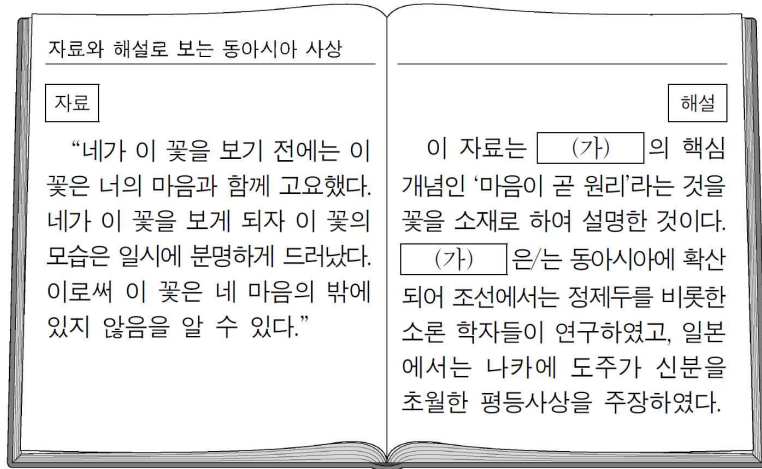
○○에게

안녕? 난 지금 베이징에 있는  
 고서점가인 유리창(琉璃廠)이라는 곳에  
 와 있어. 이곳은 [가]의 건륭제가  
 『사고전서』 편찬을 명했을 때, 학자  
 들이 상세한 고증을 위해 필요한  
 참고 도서를 구하던 곳이야. 『홍루몽』  
 같은 소설도 많이 팔렸겠지?

  
 옛 모습이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지금도 오래된 책과 옛 그림을 파는  
 가게들이 많아. 다음에 꼭 같이 와서  
 차도 마시고 [가] 때 제작된 연화도  
 찾아보자. 그럼 잘 지내.  
□□ 씬

- ① 한국 - 민화가 성행하였다.
- ② 한국 - 판소리가 유행하였다.
- ③ 중국 - 경극이 인기를 끌었다.
- ④ 일본 - 읽기와 셈법 등을 가르치는 데라코야가 확산되었다.
- ⑤ 일본 - 도다이사가 창건되었다.

▶(기) 유학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서집주』의 편찬으로 집대성되었다.
- ② 『해체신서』 간행의 학문적 배경이 되었다.
- ③ 일본에는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전래되었다.
- ④ 지행합일을 중시하는 왕수인에 의해 확립되었다.
- ⑤ 공자와 맹자 시대의 유학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하였다.

Check!

실사구시의 학문 경향

선생은 크게는 국도를 건설하고 향읍을 구획하는 것에서부터, 작게는 금석문·고고학·의기·잡복 등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사실에 근거하여 탐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규모가 방대하고 종합한 이론이 치밀하여 모두 경전을 보좌할 만한 것이니, 선생의 도를 드러내 보인 것들이다.